

캐나다 재외동포들도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퇴진" ...전 세계 재외동포 시국선언문 2만여 명 동참



(안영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동포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소셜 미디어 X에 올라온 시국선언문에 서명한 캐나다 동포는 10일 현재 1천 명을 넘어섰다. 캐나다 동포의 시국선언은 지난 7일 에드먼턴에서 캐나다 재외동포 62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흘만에 1003명이 이에 동참했다. 이들은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시민들과 함께 더 많은, 더 깊은 민주주의를 요구했다. 캐나다 재외동포들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을 "충격과 공포로 얼룩진 아침"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특히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 등장한 '처단'과 '사전검열' 같은 표현에 경악하며,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의 안전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뉴스를 지켜왔다고 회상했다. 시국선언문은 "오랫동안 피와

눈물로 지켜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찢나의 순간에 유린되었다"며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위반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토론과 숙고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반민주적이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계엄령 철폐를 요구했다. 이번 선언문은 계엄이 선포된 3일 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캐나다 재외동포들이 줌미팅으로 만나 다양한 의견들을 구글 문서(Google Docs)를 통해 공유하면서 작성됐다. '캐나다 동포들 시국선언문 있어요~~~' 라는 제목의 X 게시물에 따르면, 캐나다 동포들의 집회도 이어지고 있다. 토론토는 14일인 토요일 오후 1시에 한인들의 최대 거주지역인 노스욕의 멜라스트먼트 광장에서 집회가 열릴 예정이며 밴쿠버에서도 13일 또는 14일에 시국 집회가 열린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6일에 발표된 재외동포 시국선언문은 하루 만에 1만 명 서명을 돌파한 후 10일 1만9519명이 동참했다. 서

명한 동포들은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해 104개국 1300여 개 도시에 달한다. 특히 미국 재외동포들의 시국선언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4일 하버드와 스탠퍼드대를 포함한 북미 13개대 한국학 연구소장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고 다음 날은 토론토 대학과 브리티시컬럼비아대를 비롯해 미시간 대학, 컬럼비아대, 텍사스대 등 북미 유수 대학과 아이비리그에서 계엄령 선포 규탄 시국선언문을 온라인에 배포했다. 10일 현재 이 선언문에는 931명이 서명했다. 시국 집회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일 하와이 마노아 주립대학교 교수와 학생 및 교민들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앞에서 거리 시위를 한 데 이어 7일 뉴욕과 뉴저지 한인들은 맨해튼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앞에서 '윤석열 불법 비상계엄 규탄 및 탄핵 요구 동포대회'를 개최했다. 12일에는 예일대학교와 코네티컷대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에드먼턴 시의회, 내년 재산세 6.1% 인상 승인

40만 달러 가치 주택, 연간 188달러 추가 부담

(서덕수 기자) 에드먼턴 시의회가 2025년 재산세 6.1% 인상을 승인 통과시켰다. 지난 주 화요일 최종 예산심의과정을 거친 시의회는 2026년도 재산세 6.8% 인상 계획까지 함께 승인했다. 당초 시에서는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8.1%의 인상을 요청했지만 과도한 세 부담을 의식한 시의회는 2% 가량 낮추었다. 이에 따라 2025년도의 경우 매 10만 달러 당 813달러의 재산세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40만 달러 가치의 주택의 경우 연간 188달러의 재산세가 추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에 앞서 아마짓 소히 시장은 시정 연설을 통해 현 공공서비스 축소를 막고 에드먼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인상안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시의회로서 세금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중요하다" 라고 밝혔다. 소히 시장은 예산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또는 재개발을 중단할 것을 주장한 반면 시의회는 시 비상재정안정기금을 사용

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재산세 인상을 완화시켰다. 시의회는 소히 시장이 제안한 저소득층 트랜트 패스 유지 등의 11개 안건을 통과시켰다. 총 1천 3백만 달러에 달하는 예산으로 다운타운과 차이나타운 지역 청소 비용 310만 달러, 비즈니스 개선 보수에 85만 달러, 잔디 정리 40만 달러, 나무가지 정리 86만 달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에드먼턴 시는 노후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레크리에이션 센터, 수영장 등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회는 이로써 4년의 임기 동안 약 22%의 재산세를 인상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재산세 인상에 반대하던 앤드류 맥 시의원은 "대부분의 에드먼턴 시민들이 이번 재산세 인상 결정에 실망을 나타낼 것이다. 지난 11년 동안의 시의원 임기 동안 지난 수년 간 인상된 재산세는 너무 과도했다. 결국은 다시 약속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시의회는 앤드류 맥 시의원이 제안한 차기 시의회에서 다시 예산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안건에 대해 동의하면서 차후 재산세 인상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에드먼턴 저널

DJ Heating & Refrigeration
 Dale Kim | 상업용 냉동·냉장 전문 수리 & 설치
 403-775-2472 | djmhn@gmail.com
 Residential: Furnace, Fireplace, Air Conditioner, etc
 Commercial: Walk in Cooler, Freezer, etc

에스더 박 보험
 AUTO · HOME · COMMERCIAL INSURANCE
 587-707-0117 | esther.park@insureline.com
 Suite 600, 777 8th Ave SW, Calgary

이 자리에
 광고주를 모집합니다.

경민구 부동산
 403-700-3232 | www.BobKyoung.com
 LIKE AND FOLLOW

PHO KIM
 403-276-7425
 1511 Centre B St NW, Calgary

한국어로 제공되는
은행업무를 원하시나요?
 한국어 상담으로 캐나다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BMO 마켓몰 지점에서 도와드립니다.

BMO Market Mall Branch
 3625 Shaganappi Tr NW, Calgary, AB T3A 0E2

Harry Kim
 Branch Manager
 403-503-7292 | Hyogeun.kim@bmo.com

Danny Seo
 Personal Banker
 계좌개설, 신용카드, 대출상담, 투자상담
 403-503-7316 | Danny.seo@bmo.com

Jamie Lee
 Personal Banking Associate
 계좌개설, 신용카드, 투자상담
 403-503-7320 | Jooyeon.lee@bmo.com

Heewon Choi
 Personal Banking Associate
 계좌개설, 신용카드, 투자상담
 403-503-7319 | Heewon.choi@bmo.com

Kumin Kwon
 Financial Planner
 투자상담 및 재무설계
 403-503-7614 | kumin.kwon@bmo.com

Jae Hun Kim
 Mortgage Specialist
 모기지 및 집담보대출
 403-399-2080 | Jae.kim@bmo.com

Eun Yong
 Relationship Manager
 비즈니스 대출
 Eun.yong@bmo.com

BMO

김예나 부동산

여러분의 주택 매매를
 성실히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주택 렌트 찾기
 업무도 지원해 드려요.

403.479.7911
 카톡 yenaxo | 한국어, 영어 모두 가능
 yena.kim@theagencyre.com

앨버타 주 가을 회기 13개 법안 통과

NDP, “경제, 주택, 공공 안전 법안 어딴나”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의 가을 입법회기가 지난 12월 4일을 끝으로 휴회를 시작했다. 10월 28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이번 회기에는 13개의 정부 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백신을 포함한 의료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앨버타 권리장전 개편이 포함됐다.

학교에서의 대명사 사용,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 및 트랜스젠더

의 여성 스포츠 참여와 관련된 법안도 이번에 통과됐다.

이밖에 보육 시설 규제 강화와 불법 육류 판매 근절 및 식품 안전 개선, 법원에 가는 대신 콘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의 기반 마련 등에 대한 내용도 통과된 법안들에 포함됐다.

연방정부가 제안한 석유 및 가스 제안에 반대하는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의 주권법 발의도 이번 회기에 이뤄졌다. 그리고 원내대

표 조셉 스코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앨버타의 이익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싸움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 NDP 대표 나히드 넨시는 이번에 경제와 주택, 공공 안전에 관한 법안은 찾아볼 수 없었다면서, “주정부가 건강과 교육에 대해 내놓은 태도는 ‘취약한 아이들이 학교와 병원 진료실에서 더 취약해져야 한다’는 것



에드먼튼 저널

”이라고 주장했다. NDP에서는 이번 회기에 26개의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이를 상정하는데 모두 실패했다.

한편, 휴회를 마친 뒤 주의회는 예산 발표 시기에 맞춰 2월에 다시 이번 회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캘거리 한인회 총회 열려

(김민식 기자) 지난 7일(토)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약 90명의 한인들이 모인 가운데 정기총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집행부와 이사회 사업보고가 있었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 및 인준이 있었다.

올해 한인회 지출은 31만불이었고 현재 잔고는 11만불로 탄탄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내년도에는 1월 4일(토) 시무식과 3월 1일(토) 삼일절 기념식 등을 포함 올해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

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년전 한인회비가 가정당 20불에서 1인당 5불로 줄여 운영되어 왔으나 내년부터는 이를 한인회가 내주는 것으로 해서 한인회비는 없애기로 결정했다.

한인회 주관의 행사에 1회만 참가해도 한인회원으로 등록되

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최진영 회장은 그 동안 한인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500명도 채 되지 않았던 상황에 이렇게 하면 1500명정도까지 한인회 회원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한인회는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강력 규탄하고 남한정부의 8.15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 초

안을 이날 발표했다며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식 성명서로 채택되었다.

한편 이날 임기가 종료되는 7명의 이사 선출식도 있었다. 추천 받은 이가 6명에 불과해 작년과 마찬가지로 투표 없이 추천인들이 모두 이사로 선임되어 앞으로 2년간 이사로 봉사하게 되었다.

(신임 이사 명단: 김정재, 김수정, 이영현, 이상목, 빈센트 김, 조광수)



2024 Jeep Grand Cherokee



2024 Ram 1500 Classic Truck



ALL 2024 MODEL **BIG 4** CLEARANCE SALE

2024 Jeep Wrangler



2024 Jeep Grand Cherokee L



CALGARY'S MOST-EXPERIENCED TEAM HAS THE ANSWERS!

5905 weaselhead road Tsuut'ina AB T3T 0E5

김 한 (403)389-6165

hkim@big4motors.com

www.BIG4MOTORS.com

ALL OFFERS OAC. OFFERS INCLUDE FEES AND TAXES BUT EXCLUDE GST. ALL AVAILABLE REBATES TO DEALER. PAYMENTS BASED ON 96 MONTH TERMS @ 4.99% WITH 50 DOWNPAYMENT. COB= 59,243 (LAREDO). INVENTORY ACCURATE AT TIME OF PUBLICATION. LIMITED TIME OFFER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SEE DEALER FOR DETAILS.

에드먼턴 한인회 불법 총회를 알려드립니다

지난 2024년 12월7일 자칭 임시총회를 불법으로 강행한데 이어 다음 번 불법 임시총회를 12월 28일 또 다시 강행함은 아래의 회칙 위반으로 무효임을 공고합니다.

이처럼 회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차후 책임을 엄중히 묻겠습니다.

- 2024년 12월 7일 임시총회 : 무효 (회칙위반)

- 2024년 12월 28일 임시총회 : 무효 (회칙위반)

"회칙:25-2 임시총회는 정기총회 외의 모든 총회를 말하며 필요 시 회장 및 이사회의 요청이나 정회원 20인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임시총회 소집 요구 이유서와 안건을 첨부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회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적어도 21일 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한인신문이나 포스터 또는 한인회 웹사이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40대 에드먼턴 한인회장 선거 결과

회장 단독 후보 황병문 (부회장 정순길)님이

총 투표자 : 66표

찬성 : 44표

반대 : 20표

무효 : 2 표

의 투표 결과로 회장에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에드먼턴 한인회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장: 안정순

위원 : 양기화,김미경,이강택

지난 2024년 11월 30일 에드먼턴 한인회장 선거 투표 불법적, 조직적 방해 (Canada Elections Act에 따라 투표소 접근을 방해하거나 투표 과정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금지됩니다.)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 조직적 행위의 책임과 처벌은 차후에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투표에 참여하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에드먼턴 한인회 선거관리위원 일동

황병문 당선인 당선인사

캘거리 현직 시의원 4명, 지자체 정당 창당



지자체 선거 앞두고 도시의 두 번째 정당

(박연희 기자) 캘거리 현직 시의원 4명과 전직 시의원 1명이 2025년 10월 20일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지자체 정당을 창당했다. Communities First' 라는 이름의 이 당에는 시의원 소냐 샤프, 테리 워, 덴 맥린, 안드레 샤프와 함께 Ward 8의 전직 시의원이었다던 존 마가 포함됐다. Communities First는 지난 12월 1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시민에 대한 책임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운영, 공공 안전, 현명

하고 존중하는 성장과 함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등의 6가지 공유 가치를 발표했다. 또한 이 당은 투명한 예산과 행정 감독을 통해 세금과 각종 비용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커뮤니티의 개성을 존중하며 재개발을 추진해 밀도를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Communities First는 시민들의 참여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샤프는 "현재 시민들과의 소통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 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샤프는 Communities First는 주나 연방의 당을 위한 당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는 5명만 소속된 것으

로 발표됐지만 당은 2025년 선거에서 모든 14개 선거구와 시장직에 후보를 배출할 계획으로 2025년 초에 우선 3명을 더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Communities First에 앞서 캘거리에는 첫 번째 지자체 정당인 A Better Calgary당이 창당된 바 있으며, 중도우파로 입장을 밝힌 이 당은 중도파인 Communities First로 인해 보수파의 표가 갈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협력을 요청하고 나섰다. A Better Calgary당은 현재 전직 캘거리 경찰 위원회 위원장 브라이언 티센을 시장 후보로 내세우고, 다른 4개 선거구의 시의원 후보를 발표한 상태다.

캘거리 시 주거공급, 여전히 갈 길 멀다

주거정책 진전에도 공급 부족 여전

(서덕수 기자) 캘거리 시의 공격적인 주택공급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주 화요일 시주택정책 수석 책임자 제프 체이스 씨는 시의회에 "매우 큰 진전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추구하는 5개의 주요 주택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는 심각한 주거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Home is Here" 의 7년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 직접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규제 완화 등 비시장적 공급 지원책을 통해 개발과 승인을 촉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연간 1천 유닛의 시장 공급과 3천 유닛의 공공주거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체이스 매니저는 "현재 목표치의 80%에 해당하는 공급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올해 캘거리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올 해 승인된 개발허가만 16,6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이스 매니저는 "주택공급에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치에 달하고 있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다소 뒤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캘거리 시민들은 여전히 주거 적정성 면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택 가격대비 소득 비율이 5.5 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연간 중간

가구소득보다 주택 가격이 5.5 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캘거리의 가구 소득 증가에 비해 주택가격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택 구매를 힘들게 하고 있다. 또한,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택 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 가격을 급속도로 밀어 올리고 있다. CMHC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에 따르면 현재 캘거리의 공실률이 1% 전후여서 말 그대로 빈 집이 없다는 뜻이다. 2023년 인구유입이 6% 증가, 약 7만 5천 명이 캘거리로 이주하면서 2베드룸 아파트의 렌트비가 무려 12%나 치솟았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시 전역에 걸친 새로운 준규정에 따라 개발 붐이 일어 나면서 주택공급을 가속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캘거리 시가 연방정부로부터 2억 2천 8백만 달러에 달하는 주택공급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차 지원으로 5천 7백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택 시장은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더욱 더 강하게 박차를 가해야 한다. 여전히 많은 캘거리 시민들이 적정주거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다" 라고 밝혔다. Ward 8의 쿠틀니 왈콧 시의원은 "월 베드나 투 베드룸 유닛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다. 많은 시민들이 큰 부담없이 살 수 있는 형태의 주거공급이 필수이다" 라고 말했다.

주정부, 외국인 근로자 채용위한 UAE 방문 취소

과도한 인구유입 중, 추가 외국인근로자 도입은 무리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내년 초로 예정되어 있는 UAE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주정부 이민부 무하마드 야신 장관은 "현재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라며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위한 향후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주정부가 계획한 UAE방문은 Alberta Advantage Immigration Program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신속한 영주권 취득 과정의 일부분으로 알려졌다. UAE 방문으로 채용하려던 외국인 근로자의 주요 직종은 헬스케어, 테크, 법집행 부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프로그램은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민 프로그램으로 지난 해 9,750여 명이 이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신 장관은 "UAE 방문 계획

은 이민 및 다문화부 내부에서 추진하던 외국인 근로자 채용 계획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앨버타의 유입인구가 급증하면서 더 이상 이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라고 밝혔다. 3일간으로 예정된 UAE 방문에서는 참여를 신청한 앨버타 고용주들이 직접 근로자들을 인터뷰하며 채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이런 방식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은 이미 뉴브런즈윅, 매니토바, 퀘벡에서도 주요 직종의 인력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앨버타와 마찬가지로 퀘벡 또한 내년 여름까지 이 프로그램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스미스 주수상은 "국제 이민은 이미 앨버타의 인구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

근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한 주거, 헬스케어, 학교 등 다양한 부문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정부가 나서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무리이다" 라고 밝혔다. 2023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앨버타 인구는 4.4% 증가, 약 20만 4천 명이 증가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주정부의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앨버타의 신규 유입 인구는 약 6만 명이 이민자였으며 임시 외국인 근로자, 국제유학생, 피난민, 망명 신청자가 9만 1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이민자 축소 방침에 따라 주정부를 통한 이민은 향후 3년 간 5만 5천 명선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당초 2025년과 2026년 예정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전체 이민자수는 약 12만 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자유당 정부, 총기 규제 강화... 수백 종 추가 금지

금지 총기 소지자, 내년 10월말까지 처분해야...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정부가 현재 금지되고 있는 총기 무기 목록에 수백 종의 모델을 추가하는 새로운 총기 규제 조치를 5일 발표했다.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니크 르블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24종의 고유한 제조사와 모델 및 그 변종을 포함한 공격형 총기 제품군 총 104개 계열을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면서 "이러한 총기는 더 이상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사용, 판매 또는 수입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캐나다 내 총기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의 일부로 금지 목록에 총기를 추가했으며, 앞으로도 총기 밀수 및 불법 거래를 중단하기 위한 국경 보안 투자, 강화된 총기 통제, 더 강력한 총기 법률(개인의 권총 판매, 이전 및 수입 금지를 법제화하고 총기 불법 거래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소유자는 내년 10월 30일까지 사면 기간이 주어진다. 원주민법에 의해 총기를 소지할 수 있거나 생계를 위해 사냥에 총기 사용 권한이 있는 등 금지된 총기를 합법적으로 소지한 사람들은 사면 명령에 의해 그때까지 형사 책임 없이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오는 13일 의회에 규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는 2020년 5월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캐나다와 해외의 대량 총격 사건에 사용된 특정 '공격형' 무기 1500개 이상의 모델과 변종을 금지한 이후의 추가 조치다. 2024년 11월 현재 2천 개 이상의 모델과 변형이 금



지된 상태다. 오늘 추가로 금지된 돌격형 화기는 2020년에 금지된 것과 동일한 기술적 특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또한 2023년에 채택된 총기 법안인 C-21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 C-21에는 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의 총기 면허를 취소하고 압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 대변인은 해당 조치가 새해에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캐나다에서 금지된 총기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총기는 군용으로 우크라이나는 NATO 구경의 총기에 관심을 보여 왔다. 이 발표는 몬트리올 에콜 폴리테크닉 학살 사건 35주년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다. 르블랑 장관은 "총기 난사 사건으로 다시는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 라고 말했다. 에콜 폴리테크닉 학살 사건은 1989년 12월 6일에 발생했다. 페미니스트에 대한 증오심에 사로잡힌 마크 레피네(당시 25)에 의해 에콜 폴리테크닉 기계공학 강의실에서 여성 14명이 사망하고 13명이 부상을 입었다. 금지된 총기는 연방 정부 웹사이트 'Public Safety Canada'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IFETIME WARRANTY / FREE ESTIMATES / GOOD QUALITY SERVICES

AMAX

자동차 정비/수리
Auto Body & Repair

즉시 오일 교환 / 브레이크 교환 / 자동차 앞유리 교환
20년 이상 경비 경력 / 보험 수리 환영 / 경정비 환영

GENERAL BODY WORK
PAINTING
ALL INSURANCE CLAIMS
ALL MAKES AND MODELS
ALL LICENSED
SALVAGE
OUT OF PROVINCE INSPECTIONS

모든 면허를 보유한 자동차 전문 정비업체로 빠르고 완벽한 서비스와 합리적인 수리비를 보장합니다.

TEL: 403.235.0031

FAX: 403.235.3106
E-mail: amax.autobody@gmail.com
Address: #149, 1807 60st SE, Calgary

앨버타 성소수자 단체, 트랜스젠더 법 소송 시작

주수상, “미래의 선택을 위한 안전장치”



CTV News, 주수상 스미스

(박연희 기자) 성소수자(LGBTQ+) 지지 단체 2곳과 5명의 어린이 및 이들의 부모가 최근 앨버타에서 통과된 트랜스젠더 법에 대한 소송을 시작했다.

소송에 이름을 올린 5명의 어린이들은 6세에서 12세 사이로, 소송에서는 부모가 이들을 공식적으로 대표하게 된다.

이들이 이번에 법정에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의료 전문가의 17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금지와 2차 성징 차단제, 호르몬 대체 요법 등 호르몬 약물 처방 금지 등에 대한 것이다. 단체 Egale Canada와 Skipping

Stone은 이 법이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학적 치료 제공을 거부하고 평등과 개인의 안전 등 자유에 대한 헌장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Egale Canada의 베넷 제슨은 인터뷰에서 “이는 매우 소수의 인구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사람들이 이 소수의 인원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지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앨버타 인구 430만 명 중 트랜스젠더는 7,305명, 남성도 여성도 아닌 이들은 5,170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제슨은 해당 법안에 대한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소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슨은 단체에서는 이번 통과된 2024년 보건 개정법 중 학교 내 대명사 변경을 학부모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용과 트랜스젠더의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에서도 문제점을 찾았지만 이에 대한 조치는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수상 다니엘 스미스는 지난 10월 31일, 이 법안을 도입하면서, 이는 자신을 트랜스젠더로 생각하거나 성별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미래에 내릴 선택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법안과 관련된 법적 소송은 처음부터 예상됐었으며, 스미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항을 발동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던져졌다.

그리고 이에 대해 스미스는 “이 법안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증거에 기반을 둔 것”이라면서, 법정의 판결을 미리 예측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Purolator와 UPS, 일부 택배회사 배송 중단

우체국 파업으로 배달 밀려...당분간 일부 업체 배달 중단

(안영민 기자) Purolator와 UPS는 캐나다 우체국 파업으로 배달이 쌓이면서 일부 택배 회사의 배송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캐나다 우체국이 소유한 Purolator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현재 악천후와 물량 급증으로 서비스 중단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사는 “최근에 타사 플랫폼을 포함한 일부 선택된 파트너에 대한 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는 네트워크의 무결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며 중요한 배송을 우선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Purolator는 네트워크 작업과 부하를 평가하고 있으며 가능한 빨리 서비스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anada Post 파업에 더해 Purolator와 UPS의 배달이 중단되면서 캐나다인들은 바쁜 홀리데이 쇼핑 시즌 동안 물품을 배송하고 받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미국 우편국도 Canada Post 파업으로 인해 캐나다행 우편물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미국 고객들은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 캐나다로 우편물을 보내지 말 것을 요청받고 있다.

전국적인 Canada Post 파업은 6일 현재 4주차에 접어들었다. 우편물 배달 중단으로 기업은 매일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gus Reid Institute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캐나다인 10명 중 7명은 이미 패키지를 보내거나 받는 데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윌털루 대학교의 물류 교수인 짐 북바인더는 파업이 특히 캐나다 우편에 의존하는 외딴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와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캐나다 우편은 고객에게 물품을 보내는 수단이고, 시골 지역의 일반 가정의 경우 캐나다 우편은 생명선”이라며 “오늘 파업이 중단되더라도 캐나다 우편이 정상화되는 데는 적어도 2주는 걸릴 것”이라고 했다.

캐나다 우편국과 캐나다 우편노동자 연합 간의 중재 회담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다.

캐나다 우편국은 5일 중재자를 통해 노조의 최선 반대 제안을 받았으며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캘거리 글렌모어 랜딩 재개발 안된다

시의회 투표 결과 제안 부결

(박연희 기자) 캘거리 시의회에서 글렌모어 랜딩(Glenmore Landing) 쇼핑 플라자의 재개발을 위한 토지 재구역화 제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8대 6이었으며, 재구역화 제안에 동의한 6명은 조티 곤택 시장과 시의원 에반스 스펜서, 코트니 페너, 코트니 윌콧, 지안-카를로 카르, 자스민 미안이였다.

글렌모어 랜딩 쇼핑 플라자 토지를 소유한 RioCan 매니지먼트 회사는 재구역화를 통해 향후 15년에 걸쳐 6개의 복합 용도 타워를 지으려는 계획이었으며, 이후 수십년 동안 9개의 타워를 추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 주민 수십명은 1,165개의 주거 가구가 추가될 수 있는 이 계획에 반대한다며 공청회에 참석해 며칠에 걸쳐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은 교통량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글렌모어 저수지와 근접성을 고려

할 때 개발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재개발 지지자들은 개발 지역이 대중교통 편의시설과 가깝고, 캘거리의 인구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이 추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들며 개발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투표가 진행된 이후

Palliser Bayview Pumphill 커뮤니티 연합의 회원 케빈 테일러는 시의회에서 내린 결정은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은 것이라고 만족을 표시하고, 지역 주민들은 개발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물과 공원을 보존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개발”을 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캘거리 헤럴드



발 묶인 여권, 이제 18만여 개로

캐나다 우체국 파업으로 발이 묶인 여권이 18만5천 개로 크게 늘었다. 보름 전만해도 배달을 못한 여권은 8만5천 개였다.

서비스 캐나다는 지난달 15일 우체국 파업이 시작되기 일주일 전인 11월 8일부터 여권 발송을 중단했다. 파업이 예고됐던 만큼 중요한 여권이 우편물 유통센터에 장기간 보관되는 위험을 줄이려는 조치였다.

캐나다 고용 및 사회 개발부(ESDC)는 “지금까지 신청자의 요청에 의해 약 6500개의 여권이 Service Canada 사무실로 이

전돼 전달됐다”고 밝혔다.

여권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은 연방 여권 프로그램에 연락하거나 Service Canada로 여권을 이전해달라고 요청해 직접 픽업할 수 있다.

정부 대변인은 “11월 8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됐지만 아직 도착하지 않은 여권의 수는 매우 적다”면서 “사례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우편으로 외국 여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별다른 방법이 없어 우체국이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릴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Steward Financial **청지기 자산관리**

투자 RRSP, RESP, RDSP, FHSA, TFSA, OPEN, TRUST, RIF/PRIF, LIRA/LRSP, LIF/LRIF, IPP/RCA

보험 생명, 중병, 간병, 장애, 장례, 건강, 간호, 치과, 그룹, 여행자, 수퍼비자, 모기지, 유산상속, 사업보험, PHSP, HSA

펀드 유추얼펀드, 연금펀드, 절세펀드, 사모펀드 (부동산, 모기지, 원자재, 비상장주), ETF, REIT, FTS, OM

재무설계 투자, 절세, 노후, 연금, 신탁, 상속, 부동산, 비지니스, 사업승계, 위험관리, 현금흐름/부채관리

박찬중 대표
투자상담사
자산관리사
재무설계사
모기지전문가

403-863-8580
john@stewardfinancial.ca www.stewardfinancial.ca 카톡ID: chjoong

· 독립 금융자산관리, 수백억 회사와 업무 제휴
· 알버타, BC주 전지역 무료상담 & 원격관리

캘거리 한우리교회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Calgary All Nations Community Church

우리는 복음과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민족을 향해 나가는 비전 공동체입니다.

주일 예배	1부 예배	오전 9시 30분
	2부 대 예배	오전 11시
	교회 학교 예배	오전 11시
	청년 예배(KM / EM)	오후 2시
수요 예배	저녁 7시 30분	
화요 중보기도	저녁 7시	
토요 새벽기도	오전 7시	

· 담임 목사: 김재욱
· 차세대 목사: 이인
· 교육·선교 담당 목사: 이강륜
· 예배·양육 담당 목사: 오상학
· 선교·교육 담당 전도사: 이한준

새 예배처소:
Mount Royal University
(Jenkins Theatre)
4825 Mt. Royal Gate SW
Calgary AB T3E 6K6
☎ 403-703-0691

www.calgaryhanwoori.com
“우리 홈페이지에 24시간 24시간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에드먼튼 다운타운 아파트 경비원, 총에 맞아 사망

경찰 범인 2명 체포, 범행동기는 아직 몰라

(박연희 기자) 에드먼튼 다운타운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살해한 2명이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12월 6일 새벽 106 St.과 107 Ave. 코너의 아파트 건물 안에서 총성이 있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세의 하산 딥 싱이 계단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이 날 오후 경찰은 30세의 에반 레인과 주디스 살티유를 1급 살인혐의로 체포했다. 1급 살인은 계획되고 의도된 경우로 형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일부 살인은 이와 관계없이 근무 중인 보안 요원을 살해하는 등의 경우에서 1급으로 간주된다.

CTV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서 한 남성은 해당 아파트 복도를 걷다가 큰 총을 여러 번 들어 겨누었으며, 카메라 밖에서 총을 이용해 누군가를 여러 번 때리는 장면이 촬영됐다.

여성과 또 다른 남성 1명은 근처에서 있었다. 이후 이 세 사람은 손을 머리 위로 올린 싱과 함께 계단으로 향했으며, 여성이 붙잡고 있던 싱은 계단 아래로 떨어지려다가 남성에게 총에 맞

아 계단 아래로 떨어졌다. 이후 이 세 사람은 계단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경찰은 영상에는 세 사람이 찍혔지만, 싱의 사망에 관련된 용의자는 에반스와 주디스 두 사람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여전히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펼치고 있다.

피해자 싱은 경비원으로 근무한 지 3일 밖에 되지 않았던 신입으로, 인도에서 학생 비자를 받아 캐나다로 약 1년 반 전에 이주한 뒤 Norquest 칼리지에 재학 중이었던 학생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안 전문가이자 보안 전문가를 위한 국제 조직인 ASIS Chapter 156의 회장 리차드 라포지는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던 이 아파트에 왜 싱이 혼자 근무하게 됐는지 의문을 표시하고 나섰다.

그리고 라포지는 싱과 같이 많은 경비원들은 캐나다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이들로 언어적 장벽이 있는 데다가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을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으며, “혹은 소규모 보안업체에서는 2명이 근무해야 하는 곳이라고 판단돼도, 고객이



CTV News, 하산 딥 싱

1명만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라포지는 주정부에서 보안 업계법을 개정해 훈련과 경비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싱은 올해 에드먼튼에서 사망한 두 번째 경비원으로, 지난 3월에는 다운타운 HSBC 플래츠 주차장에서 58세의 경비원인 한 남성과 다툼 끝에 사망했으며, 같은 달에는 3명의 경비원들이 칼을 든 이를 저지하고 내보내려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캘거리 전직 경찰, 배임 혐의로 기소

업무 중 만난 여성들에게 개인적 연락 취해

(박연희 기자) 캘거리 경찰이 컴퓨터 자료 시스템 악용 및 배임 혐의로 전직 경찰관을 기소했다.

16개월 동안 수사를 펼친 조사관들은 16년간 경찰로 근무해온 51세의 브렛 싱어가 2008년부터 2023년 사이에 서비스 요청이나 경찰 관련 문제로 처음 연락을 취하게 된 수많은 여성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밝혀냈다.

싱어는 경찰 업무 외에 이 여성들을 찾고, 추가적인 연락을 취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경찰 자료 시스템을 이용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어에 대한 조사는 한 불만 신고로 2023년에 시작되었다. 신고 여성에 의하면 싱어는 출동한 이후 후속 조치라며 그녀에게 계속 연락했고, 결국 이들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싱어가 이 같은 방법을 통해 다른 여러 여성과도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알게 됐으며, 싱어를 신고하고 여성들의 이름을

제출했다.

이후 싱어는 2024년 1월에 급여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7월에 검찰에 이 문제가 회부되고 9월에는 무급 정직에 처해졌다.

그러나 경찰 서장 마크 뉴웰드에 의하면 싱어는 곧 사직하고 캐나다를 떠나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캐나다 전국에 그의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그의 사진이 공개됐다.

뉴웰드는 “내가 아는 한 현직, 혹은 전직 경찰관이 근무 중 저지른 범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면서 싱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신뢰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뉴웰드는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것이 우리 경찰 서비스의 가치나 대부분의 경찰들이 매일 수행하는 훌륭한 업무에 대해 알게 됐으며, 싱어를 신고하고 여성들의 이름을



CTV News, 브렛 싱어

에드먼튼 오피오이드 사망, 앨버타 내 최다

사망자 역대 기록 세운 전년과 비교하면 감소

(박연희 기자) 에드먼튼의 오피오이드 사망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음에도, 이곳에서는 여전히

주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자 중 대다수는 펜타닐로 인한



에드먼튼 저널

것이였다.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에드먼튼에서는 1월부터 8월까지의 사망자가 364명으로 집계됐으며, 같은 기간 앨버타 전역에서는 8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에드먼튼의 8월 마약 과다복용 사망자는 52명으로, 지난해의 77명에 비해 32.5% 줄어 들었다.

앨버타의 다른 도시와 타운에서도 1월에서 8월까지 오피오이드 사망자는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캘거리에서도 2024년 8월 22명이 오피오이드로 사망하며 2023년의 50명에 비해 56% 감소했다. 1월부터 8월까지 캘거리

의 사망자는 2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앨버타에서는 1,87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역대 최고로 많은 오피오이드 사망자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사망자의 죽음에는 여러 약물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0-24년의 사망자 중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검사관 사무실에서 조사를 완료하면 해당 연

도의 사망자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7,387명이 오피오이드 의존 프로그램(ODP)을 통해 치료를 받았다.

앨버타에서는 2018년 이후 ODP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2년에는 7,883명이, 2023년에는 8,689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테일러 강 B.Comm

Life's brighter under the sun  Sun Life

보험 목록

- 🔥 생명보험
- 🔥 건강보험

- 🔥 중대 질병보험
- 🔥 그룹 베네핏

투자 & 저축

- 🔥 RRSP / TFSA
- 🔥 ETF

- 🔥 RESP
- 🔥 Mutual Fund

테일러 강 학력 및 자격증

- 🔥 Beijing 94 Highschool 北京 94 高中學
- 🔥 Saint Mary's University (Sobey School of Business) - Major : Finance & Accounting
- 🔥 Alberta Insurance Council - Life License Qualification Program (LLQP)
- 🔥 MEDA (Mutual Fund Dealers Association) - Canadian Investment Funds Course (CIFIC)



6700 Macleod Trail SE, 7th Floor, Calgary  taylorlorkang0703 ☎ 587-890-6177

캘거리 전직 주교 프레드 헨리 81세로 사망

동성 결혼, 낙태, HPV 접종에 강한 반대 표해



캘거리 헤럴드

(박연희 기자) 캘거리 전직 가톨릭 주교 프레드 헨리가 8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가톨릭 교구의 페이스북에 의하면 헨리는 12월 3일 오후 캘거리 록키 뷰 병원에서 사망했다. 헨리는 지난 2017년 건강상의 문제로 주교 자리에서 은퇴했으며, 윌리엄 맥그레탄이 그 자리를 이어받은 바 있다. 헨리는 19년간 캘거리의 주교로 활동하며 솔직한 발언으로 자주 논란이 되기도 했으며, 동성 결혼, 낙태, 학교 내 HPV 예방 접종 등의 문제를 놓고 정치인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는 2004년에 전 자유당 수상인 폴 마틴이 동성 결혼과 낙태를 지지하는 것에 대해 그는 나쁜 가톨릭 신자라고 말하고, 2008년에는 5학년 여학생들에게 성병을 예방하는 HPV 접종을 제공하는 것은 순결에 대한 가톨릭의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은 처음에는 학교 내 HPV 예방 접종을 거부했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고 나섰다. 이 밖에 헨리는 2014년에 저스틴 트뤼도가 모든 의원들이 하원에서 낙태 관련 법안에 대해 찬성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이후에는 그를 어

리석다고 비난했으며, 2016년에 앨버타 NDP 정부에서 학생들의 성 정체성 존중을 위해 내놓은 지침은 '반가톨릭' 적이며 '전체주의' 의 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헨리는 은퇴 이후에도 2021년에 트뤼도가 원주민 기숙학교에 대해 가톨릭의 참여를 언급하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간과하는 '거만한 자세' 를 취했다고 비난하고, 그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주요 책임은 연방정부가 져야 한다" 고 전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종교 지도자들도 원주민의 신앙과 문화에 대해 충분한 존경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의 사망 소식이 알려진 후 전 앨버타 주수상 제이슨 케니는 소셜 미디어 X를 통해 헨리는 특히 약하고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큰 마음을 가졌던 진정한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시했다.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도 성명서를 발표해 "그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거나, 그의 설교에 영향을 받지 않은 이들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 이라면서, 헨리는 신앙의 살아있는 본보기였고 교육청은 수 년동안 그의 지원과 영적 리더십을 누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주정부, 빌딩 관리업체에 운영 중단 명령 안전 및 접근성 미확보 등 직무유기 확인

(서덕수 기자) 주정부가 빌딩 관리업체인 Trinity Place Foundation of Alberta 에 대해 운영 중단 명령을 내렸다. 이 업체가 관리 중인 빌딩이 모두 16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정부의 운영중단 명령은 이 업체의 업무소홀 등 직무유기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빌딩의 외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고령자들의 빌딩 접근성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빌딩관리에 대한 회계장부가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입주민들의 보수 요청에도 수리를 지연하는 등 빌딩관리업체로서의 책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는 Trinity Place Foundation of Alberta (TPFA)의 운영관리권을 중지시키고 비영리 업체에 빌딩관리 권한을 넘길 예정이다. 주정부의 운영권 이관 일시는 2025년 3월 31일로 확인되었으며 총 16개 빌딩이 해당된다. 특히, 이 중 1,500여 명의 시니어 입주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는 "TPFA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만 등으로 인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정부는 입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TPFA의 빌딩관리권을 중단시키기로 결정했다" 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그 동안 TPFA에 예산 증가와 인력 충원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TPFA는 여전히 운영상의 문제를 불러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캘거리 헤럴드

트뤼도를 '주지사'로, 캐나다를 '위대한 주'로... 트럼프 또 조롱

여론조사, '미국의 51개 주, 캐나다' 캐나다인 13% 지지, 82% 반대
트뤼도 "미국이 25% 관세 부과하면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것"

(안영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1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 라고 부르고 캐나다를 '위대한 주' 라고 부르며 다시 한번 조롱했다. 트럼프는 지난달 Mar-a-Lago에서 트뤼도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건 어떠한 농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트럼프는 캐나다가 불법 이민과 미국과의 무역 적자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하면 주가 되는 게 낫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트럼프의 조롱에 대해 캐나다인의 13%는 "캐나다가 미국의 주가 되기를 바란다" 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82%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Leger의 새로운 여론 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제안을 지지하는 캐나다인은 남성이 19%로 높은 반면 여성은 7%에 불과했다. 보수당 지지자라고 밝힌 응답자의 21%가 지지했고 자유당 유권자는 10명 중 1명이 캐나다를 미국의 주로 편입하는 트럼프의 제안에 찬성했다. 이 여론조사는 12월 6일과 9일 사이에 1520명의 캐나다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10일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캐나다의 위대한 주 저스틴 트뤼도 주지사와 저녁 식사를 하게 되어 기뻐다. 저는 주지사를 곧 다시 만나 관세와 무역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 결과는 모두에게 정말 대단



BBC

할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CBC 뉴스는 트럼프가 이런 조롱을 공개적으로 하는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트뤼도 총리의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 언급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뤼도 총리는 9일 트럼프가 모든 캐나다 수입품에 25%의 엄청난 관세를 부과한다면 캐나다가 미국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첫 임기 때 캐나다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특정 미국산 제품에 표적 관세를 부과한 사실을 언급하며 "8년 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공정한 관세에 대응할 것이고, 여전히 올바른 대응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조롱과 그가 캐나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기자들의 질문에 재무부 장관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나라이며 그것에 대해 우리 모두 매우 확신한다"면서 "우

리 정부는 국가 이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민 장관 마크 밀러는 "사우스 파크(미국 애니메이션 시트콤)의 한 에피소드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달 Mar-a-Lago에서 트뤼도 총리와 동행했던 공공 안전부 장관 도미니 르블랑은 트럼프의 발언이 그저 놀림조로 말한 것이라고 평했다. 르블랑은 "트럼프는 농담을 했다"면서 "그는 우리를 놀렸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수당 대표 피에르 푸일리에브르는 트럼프의 조롱 발언은 트뤼도 총리가 약하고 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결론은 저스틴 트뤼도가 약한 지도자이고 전 세계 국가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것" 이라고 말하며 "캐나다는 독립적이고 강하기 때문에 약자가 아닌 강자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앨버타, 튀르키예와 의약품 계약 아직 끝난 것 아냐 잔액 선불 지급, 4,900만 달러 잔액 여전히 남아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에서 아동용 진통제 부족 사태가 있었던 2년 전, 튀르키예의 한 제약회사와 맺은 수입 계약에서 지불한 7,000만 달러 중 4,900만 달러의 잔액이 여전히 튀르키예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6일, 당시 앨버타 보건부 장관이었던 제이슨 코프과 다니엘 스미스 주수상은 캐나다 전역의 아동용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7천만 달러를 배정해 튀르키예의 회사로부터 500만 병의 진통제를 수입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캐나다 보건부에서는 2,100만 불 어치인 150만 병만 수입을 승인했으며, 이로 인해 선불 잔액 4,900만 달러가 남아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보건부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장관은 튀르키예의 제약 회사인 Atabay가 현재 이 잔액에 대해 이자를 얻고 있으나, 이는 당시 의약품 부족 상황에서 거래에 필요했던 계약 내용이라

고 밝혔다. 그리고 라그랑지는 주정부에서는 이 남아있는 잔액으로 Atabay로부터 추가 약품을 구매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앨버타 헬스 서비스(AHS)가 종합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품을 살피는 등 모든 옵션이 고려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모든 수입 의약품은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국내 공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HS에서는 캐나다 보건부의 승인 절차는 수입을 진행하는 MHCare의 몫이라면서, "다른 상업적 계약과 마찬가지로 지불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당사자들 간에 비밀로 유지된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처럼 정부가 계약금의 전액을 선불로 지불하는 것이 얼마나 흔한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튀르키예의 아동용 진통제가 앨버타에 도착한 2023년 초, 의약품 부족 현상은 종료됐으며 당초 이 진통제를 다른 주



에드먼튼 저널

에 판매하겠다는 앨버타 주정부의 계획은 다른 주의 관심 부족으로 결국 좌절됐다. 게다가 이 진통제는 캐나다에서 판매되던 기존의 진통제들과 성분 함량이 달라 복용에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AHS에서는 종합병원에서 이를 약 6개월간 사용하다가 함량과 농도 문제로 사용을 중단하고 기존의 약품으로 돌아갔다. 현재 앨버타에 남아있는 튀르키예 약품은 13개월 안에 사용기한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스미스는 이것이 종료되기 전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힌 상태.

새롭게 빌딩 관리업체로 선정된 곳은 Calgary Heritage Housing, Onward Homes Society and Silvera for Seniors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베라 측은 이미 입주민들에게 서한을 통해 새로운 관리업체 임을 알렸으며 12월 중 입주민들에게 빌딩관리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주정부의 관리업체 이관에 대해 기대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스 가든의 입주민 케리 모간 씨는 "새로운 관리업체가 들어서 아무런 문제없이 빌딩 관리가 진행되었으면 한다. 그동안 빌딩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이 컸다. 새로운 관리업체가 인수인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일해주었으면 한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내가 살고 있는 빌딩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도 모르겠다. 예전에는 엔지니어들과 안전

요원들이 매년 확인했지만 지난 수 년간은 안전점검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라고 밝혔다. 한편, TPFA는 주정부의 결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관리자 폴 달리왈 씨는 "우리는 주정부의 요청에 대해 협조했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에도 정당한 사유와 근거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장은 무시된 채 전격적으로 운영권을 중지시킨 것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CBC “윤 대통령 탄핵 무산… 잔여 임기 못 채울 듯”

“기괴하고 생각 없이 저지른 행위로 혼란 초래…한국 정치 마비”

미국, 유럽, 일본 등 외신들도 탄핵 무산으로 정치 혼란 장기화 전망

(안영민 기자) “윤의 기괴하고 생각 없이 저지른 행위로 인한 혼란은 한국 정치를 마비시켰고 미국과 일본과 같은 주요 외교 파트너들 사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캐나다의 공영 방송 CBC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이 같이 보도했다.

방송은 “윤의 리더십이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윤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채울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의 요구가 더 커질 경우 일부 여당 의원이 결국 야당의 윤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CBC는 또 탄핵안 부결로 인해 윤석열의 축출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심화되고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대다수의 한국인이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여론 조사를 인용하기도 했다.

탄핵안 투표 직전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퇴장한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계엄령 선언이 집권 보수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진보주의자들에게 대통령직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투표 불참으로 윤석열의 탄핵에 반대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미국 언론들도 탄핵안 표결 무

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표결 불발은 추가적인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 주 짧은 계엄령 발효 이후 한국을 뒤 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표결에서 단결했다”며 “윤 대통령의 행동들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한 것”이라고 평했다.



“재외동포 복수국적 연령

40살로 낮추면 국익에 도움”

재외동포들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40세로 낮춰야 산업인력 증대 효과가 가장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재외동포청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재호 다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분석' 보고

서를 발표했다.

박 연구원은 복수국적자의 국내 거주 생활에 따른 생산 효과, 부가가치 효과, 고용유발효과, 사회보험에 대한 기여와 조세부담, 복지혜택과 건강보험 급여 등의 사회적 관점에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40세로 하향할 경우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져 사회경제적 기여가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P 통신 역시 여당 다수 의원의 투표 거부로 탄핵안이 부결됐으며 여당의 보이콧은 대통령직을 야당에 빼앗길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해 온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현지 공영방송 NHK는 한국 국회에서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윤 대통령이 직무를 계속하게 됐다"고 속보로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탄핵안 무산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면했으나 야당이 탄핵안을 다시 제출할 방침이고 여론의 반발도 강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중국중앙 TV(CCTV) 등 관영매체들도 속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 소식을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

결에 부쳐졌으나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재적의 3분의 2인 200명이 찬성해야 가결될 수 있었으나 5명이 부족해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은 2004년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두 달 후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고, 이듬해 3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야당은 일주일 단위로 탄핵안 재발의와 표결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1007 Parsons Road SW (587) 490 - 8966 ms_koreanbbq

INTERNATIONAL MASTER CHEF ASSOCIATION

무죄 솔뚜껍 구이

LAUNCHING EVENT

기념 15% 할인

명성 닭갈비 캘거리점 월,화,수 런치메뉴 한정 2025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온 명성 닭갈비 (구 막창도둑)가 색다른 메뉴와 가성비 런치스페셜을 소개합니다.

캘거리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닭갈비와 새로운 명성 런치 비빔밥 세트, 막꾸삼과 불고기등을 경험해보세요.

마스터 셰프의 손길로 새롭게 탄생한 메뉴를 자랑스럽게 선보입니다.

“K-BBQ 업그레이드”

MS CHICKEN BBQ

名 醫

MS Chicken BBQ

(구)막창도둑

캘거리점 Only



MKMK 보험이 BrokerLink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BrokerLink Insurance

앞으로도 직원의 변화없이 기존 MKMK 보험 어드바이저가 BrokerLink의 이름으로 고객님을 계속 모실 것입니다.

캘거리 사무실 | 전화: 403.668.1139 | 에드먼턴 사무실 | 전화: 780.318.1183
6-12030 Symons Valley Rd NW, Calgary, AB | 109A-10903 23 Ave NW, Edmonton, AB

중앙은행, 또 기준금리 0.50%P 인하

3.75% → 3.25%로... 10월 이어 두 번째 '빅컷'
캐나다화 약세 지속 - 미화 대비 1.41달러로



(안영민 기자) 캐나다 중앙은행이 10월에 이어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정책)금리를 다시 한번 50bp(0.50%)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다. 은행은 11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인플레이션이 약 2%이고, 경제가 공급 초과 상태이며, 최근 지표가 예상보다 성장이 둔화되면서, 은행의 통화위원회는 성장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1-3% 목표 범위의 중간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정책 금리를 추가로 50베이스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의 예측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인 분기별 GDP 보고서와 실업률 상승을 보인 일자리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큰 폭의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로써 캐나다의 금리는 3.25%로 떨어졌다. 올초만 해도 캐나다는 5%의 높은 기준금리를 1년 이상 유지해 왔다. 이후 6월부터 시작한 4번의 금리 회의에서 25bp와 50bp를 인하했던 중앙은행은 이번에 한번 더 금리를 50bp를 내려 반 년 만에 175bp(1.75%)나 낮췄다. 지난 10월에 처음 단행된 '빅컷'은 4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중앙은행은 "2025년 이민 감소가 GDP 성장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면서 "캐나다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위협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경제 전망을 어둡게 했다"고 강조했다.

금리 인하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25년에 모기지 갱신을 앞둔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한숨을

돌릴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에 따르면 2025년에 120만 건의 모기지가 갱신될 예정이다. CIBC 분석에 의하면 최근 두 번의 '빅컷'으로 2025년 모기지 갱신 시 월 평균 모기지 지불액은 2.5%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모기지의 약 40%가 실질적으로 월 상환금이 낮아지며, 약 10%는 상환금이 10% 미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CIBC는 나머지 50%가 평균 20% 더 높은 이자율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변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은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 25년 상환을 가정할 때 40만 달러 모기지의 경우 월 약 112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고정 금리 모기지를 가진 사람의 경우 최근 금리 인하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5년 국채 수익률에 이미 반영돼 현재 고정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가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은행의 정책 금리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상한선보다 150bp 낮아졌다. 캐나다 금리가 미국보다 이처럼 낮은 것은 1997년 이후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캐나다 달러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가 발표된 11일 오전 외환시장에서 캐나다 달러는 미화 대비 1.4129달러로 거래되면서 당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은 경기 침체를 막고 인플레이션의 재발을 피할 수 있을 만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5년에도 추가적인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첫 통화정책회의는 1월 29일에 열린다. 중앙은행은 2025년에 총 8번의 금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분석가들은 새해에는 소규모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다. TD는 은행의 대출 금리가 2025년 말까지 2.25%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한다.

주택 리노베이션 저리 대출 4만불 → 8만불로 두 배 증액



(안영민 기자) 캐나다 연방 정부는 지난 4월 예산안에서 처음 발표된 2차 주택 대출 프로그램의 대출 한도를 두 배로 늘린다고 10일 발표했다.

2차 주택 대출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자가 기존 주택에 세컨드 스위트나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을 임대 아파트로 개조하거나 차고를 주택으로 꾸며 가족의 일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당초 이 프로그램에 최대 4만 달러의 저리 대출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이 한도액을 8만 달러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 15일부터 주택 소유자는 캐나다 2차 주택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8만 달러까지 자금을 조달해 리노베이션을 할 수 있다.

이 대출은 15년 동안 2%의 이율로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은 12월 16일에 발표될 정부의 가을 경제 성명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컨드 스위트에 소요될 추가 자금 확보를 위해 보험 모기지 채융자 옵션도 시행한다.

대출기관과 보험사는 최대 30

리노베이션 후 집값의 90%까지 모기지 채융자 가능
정부 "임대 주택 부족 해결하고 지역의 주택 밀도 높일 것"

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리모델링 후 주택 가치의 90%까지 모기지 채융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최대 200만 달러까지 가능하며 내년 1월 15일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주택 소유자는 2차 대출 프로그램과 모기지 채융자를 모두 활용해 세컨드 스위트를 추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의 임대 주택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주택 밀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캐나다는 현재 상당한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다. 특히 도시 중심가에서 저렴한 주택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수백만 채의 신규 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발표된 보고서에서 의회 예산 책임자(PBO)는 2030년까지 주택 격차가 65만8천 채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주택 장관인 손 프레이저는 성

명을 통해 "주택 소유자가 기존 부지에 신규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저비용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캐나다 전역에서 사람들이 살고, 머물고, 임대할 수 있는 공간을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5일부터는 새로운 모기지 규정에 따라 보험 모기지 가격 상한이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인상된다. 주택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지불하지 않거나 모기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종전에는 100만 달러 이하인 주택에만 허용됐으나 그 한도가 이제 150만 달러로 늘어나는 것이다. 토론토나 밴쿠버는 가격이 100만 달러를 넘는 부동산이 많아 이 경우 모기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아울러 30년 모기지 분할 상환 조건도 모든 최초 주택 구매자와 신축 주택 구매자로 확대된다.

캘거리 올림픽 플라자 벽돌, 구매자들에게 반환

1988년 당시 구매한 이들 신청받아 추출 작업



(박연희 기자) 캘거리에서 이전의 결정을 번복하고 올림픽 플라자의 벽돌을 구매했던 이들은 이를 되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캘거리에서는 1988년 동계 올림픽을 기념해 19.88달러에 약 3만개의 벽돌을 판매했고 이 벽돌에 구매자의 이름이나 메시지를 새길 수 있도록 했다.

당초 지역의 공사를 담당하는 캘거리 지자체 토지공사(CMLC)는 올림픽 플라자가

2024년 말 폐쇄된 후 이 벽돌들을 철거해 폐기할 계획이었으며, 이 벽돌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에는 너무 낡아 새로운 설계에는 포함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제거해 구매자에게 돌려주기에는 온전한 상태로 벽돌을 꺼내기 어렵고, 이와 관련된 비용도 높을 것이라면서 폐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CMLC 회장 케이트 톱슨은 지난 12월 9일, "여전히 이 벽돌을 원하는 이들이 많은 것을 확인했다. 연식과 상태로 인해 모든 벽돌을 온전히 꺼내기는 어렵지만, 벽돌을 되찾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추출이 시도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에서는 이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직접 벽돌을 구매했거나 이와 연관이 있는 이들로부터 벽돌 추출 신청을 접수받게 된다. 이후 자신의 벽돌이 성공적으로 제거된 이들은 1월에 이를 받아갈 수 있다.

그러나 CMLC는 벽돌은 공공 재산이기 때문에 이를 스스로 가져가려하는 이들은 250달러에서 4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올림픽 플라자는 2028년까지 폐쇄되며 새로운 디자인은 2025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박세현 공인 회계사

ONE-STOP SERVICE 법인 설립부터 비즈니스 매매, 세무보고까지 한 곳에서 해결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고객의 소중한 비즈니스를 위해 신뢰도 높은 전문성으로 최선의 결과가 있기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Our Services

- 신규 법인 설립 (비즈니스매매)
- 회계장부 정리 (매월 비즈니스 수익성 확인)
- Payroll, GST 외 기타 Government filings
- 법인 세무 보고
- 개인 세무 보고 (해외 자산 및 소득 신고)
- 세무 컨설팅
- 세무 감사 대행
- Trust return

전화: 403) 462-5202 이메일: info@sparkcpa.ca 홈페이지: www.sparkcpa.ca

최고의 서비스와 전문성을 갖춘 공인 회계사가 언제나 책임과 정성을 다합니다.

CPA 문 병 옥 공인회계사

◎ 자격: 캐나다 공인회계사, 캐나다 재정설계사

◎ 약력:

-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MBA (경영학 석사)
- 한국 금융권 경력 10년
- 캐나다 회계 및 금융 경력 15년 이상
- 前 밴쿠버 라디오서울 방송국 "주간경제뉴스" 고정 출연

◎ 취급 업무: 기업회계 / 세무 / 해외자산신고 / 비즈니스 컨설팅

전화: (403) 968-2608 E-mail: okcga@hotmail.com

주소: #312-4014 Macleod Trail S, Calgary AB

캘거리 임대료 전국 3번째로 낙폭 커... 에드먼튼은 여전히 상승세



전국 콘도 임대료 하락세...작년 대비 4% '뚝'

11월 전국 임대료, 15개월 만에 최저치...두달 연속으로 하락세

2351달러를 기록해 전월의 5.7% 하락에서 낙폭을 키웠다. BC주의 아파트 임대료 하락은 11월에 다소 완화돼 전년 대비 2.3% 감소한 2524달러를 기록했다. 퀘벡주도 0.4% 감소한 1969달러를 나타냈다.

다른 주에서는 임대료가 올랐는데 특히 사스캐치완이 8개월 연속으로 성장을 주도해 11월 임대료가 12.1% 증가한 평균 1361달러가 됐다.

앨버타주의 임대료 증가는 두달 전인 9월에 기록된 연간 10.3%에서 3.7%로 둔화됐다.

도시 별로 임대료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토론토다. 11월에 연간 9.4% 하락해 2640달러가 됐는데 이는 28개월 만에 기록된 최저치다.

밴쿠버도 12개월 연속으로 연간 임대료가 하락했다. 11월에 8.9%가 내린 2888달러를 기록해 30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세 번째로 임대료가 크게 내린 지역은 캘거리다. 에드먼튼과 함께 전국의 임대료 상승을 견인했던 캘거리는 9월부터 하락세로 반전해 10월에 5%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전년 대비 5.8%로 떨어졌다. 캘거리의 평균 임대료는 1959달러다.

에드먼튼은 연간 임대료가 계속 증가해 11월에 5.7% 오른 평균 1556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상승률은 10월의 8.4% 증가에 비해서는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앨버타 도시 가운데 임대료가 오른 곳은 그랜드 프렐리(+15.0%), 레스브리지(+14.1%), 메디신햇(+11.7%)이었다.

(안영민 기자) 캐나다 전국적으로 임대료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거리 임대료가 토론토와 밴쿠버에 이어 전국 주요 도시 중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했다. 에드먼튼의 임대료는 11월에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크게 둔화된 모습이다.

Rentals.ca가 10일 발표한 전국 임대료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임대료는 연간 1.6% 하락해 15개월 만에 가장 낮은 2139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전국의 임대료가 연간 1.2% 하락해 3년 만에 처음으로 내렸는데 11월에 낙폭 수치를 경신하며 두달 연속 하락했다.

캐나다 임대료는 그동안 3년 이상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해 왔다. 이에 따라 최근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의 평균 임대료는 2년 전보다 6.7%, 3년 전보다 18.8% 높다. 지난 5년 동안 캐나

다의 임대료는 연평균 3.4%씩 증가했다.

콘도미니엄의 임대료가 많이 내렸다. 작년 대비 4.0% 하락해 평균 2239달러를 기록했다. 3베드룸 콘도만 연간 1.9% 상승한 2936달러를 나타냈을 뿐 모든 유형의 콘도 임대료가 하락했다. 특히 2베드룸 콘도는 연간 최대 하락률인 4.3%를 기록, 2344달러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1베드룸이 연간 0.6% 하락해 1904달러가 됐고 2베드룸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균 2294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스튜디오와 3베드룸은 연간 5.8%와 5.9%로 상승해 각각 1617달러와 2676달러를 기록했다.

하락은 주로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도시 중심지에 집중됐다. 11월 온타리오의 아파트 임대료는 연간 6.4% 감소한

2025년 주택 가격,

단독 주택이 콘도보다 두 배 더 오를 듯

(안영민 기자) 부동산 중개 회사 Royal LePage가 최근 발표한 연례 시장 조사 예측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주택 가격이 연간 6%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낮은 이자율로 인해 구매자가 시장으로 나오면서 모든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모든 주택 유형의 중간 가치의 가중 평균을 사용해 계산한 주택의 총 가격은 2025년 4분기까지 연간 6% 상승해 85만 6692달러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4분기 주택의 총 가격은 80만 8200달러로 추산된다. 단독 주택의 중간 가격이 올해 84

만 1900달러에서 2025년 4분기까지 연간 7% 상승해 90만 833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콘도미니엄 가격은 연간 3.5% 상승해 58만 5500달러에서 60만 5993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oyal LePage는 주택 가격이 1분기에 가장 큰 분기별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2025년 하반기에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역 토론토에서 연간 5% 상승하고 밴쿠버는 연간 4% 상승이 예상된다. 에드먼튼은 퀘벡시와 리자이나와 함께 내년엔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캘거리 공항, 연말 맞을 대비

지난 여름 우박 피해의 여파 여전

(이남경 기자) 캘거리 국제공항은 기록적인 이번 여행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름 동안 도시를 강타한 대규모 우박 폭풍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캘거리 공항 관리국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크리스 마일스는 우박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휴가 시즌의 혼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일스는 “우박 피해로 인해 항공편 수용 능력에 영향을 받거나 항공편을 축소해야 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터미널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초기 피해를 복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장 심하게 손상된 탑승구 복구 작업은 2026년 7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일스는 폭 11km, 길이 100km에 달하는 규모였던 폭풍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복구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덧붙였다. 8월 5일 발생한 폭풍은 대규모 우박, 강풍, 폭우, 국지적 홍수를 동반하며 캘거리 주택 20%에 피해를 입혔다.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캘거리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28억 달러로,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자연재해 피해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캘거리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강타하며 웨스트젯과 플레어 에어라인즈의 항공기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보유 항공기의 10%를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운항 중단해야 했다.

웨스트젯의 콜린 타이넨은 “

이번 여름 캘거리 우박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17대의 항공기 중 2대는 아직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캘거리 공항 파트너들과 협력해 크리스마스 및 겨울철 여행 시즌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날씨 관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에는 수하물 처리, 항공기 후진 지원, 체크인 및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타이넨은 “우리가 매년 휴가 시즌에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추운 날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가 동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난방 장비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넨은 “또한 겨울철과 휴가 시즌을 대비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추가로 확보했고,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라고 덧붙였다.

마일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180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기록을 경신해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는 더 크고 두꺼운 지붕 구조를 포함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일스는 이 작업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고, 캘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캘거리 남쪽에서 레드디어까지 이어지는 우박 폭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광역밴쿠버에서 부동산 구매나 사업을 고려중이신가요?

경험 많고 신뢰할 수 있는 베테랑 리얼터들이
리세일, 분양, 전매, 비즈니스, 커머셜 매매를
성실히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모아 리얼티 그룹

David Yeo
778-822-7154
dm_yeo@yahoo.ca

Jason Roh
778-877-7128
jrohproperties@gmail.com

Harry Ahn
778-879-9986
ahn6948@gmail.com

Mia Park
604-805-8258
miapark@royalpacific.com

ROYAL PACIFIC TRI-CITIES REALTY



직장 구하기 어려운 캐나다, 실업률 8년만에 최고로 상승

11월에 6.8%로 치솟아...일자리 늘어도 급증하는 구직자 흡수 못해

전국 실업자 150만 명...청년 실업률은 13.9%

(안영민 기자) 토론토에 사는 한인 박모(51)씨는 최근의 캐나다 불경기를 피부로 체감하는 사람 중 하나다.

박씨는 “몇 달 전부터 식당이나 캐셔 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 도무지 자리가 나오지 않는다”면서 “식당은 늘 사람이 모자라 금방 취직이 됐는데 요즘 너무 장사가 안되니 사람을 아예 뽑지 않는다”고 말했다.

캐나다 전국의 실업자는 11월 기준으로 150만 명으로 증가했다. 박씨는 그 중 한 사람인 셈이다.

캐나다 실업률이 11월에 6.8%로 치솟았다. 팬데믹을 제외하면 2017년 이후 최고치다.

6일 발표된 통계청의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 경제는 11월에 5만1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지만 늘어나는 구직자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 실업률이 상승했다.

지난 10월의 실업률은 6.5%였다. 한달만에 0.3%포인트 상승한 것은 전문가들의 예측치를 벗어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앞서 11월에 2만5천 개에 일자리 증가와 6.6%의 실업률을 예상했다. 예상보다 두 배 이상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음에도 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거나 해고된 사람들이 크게 늘었음을 반증한다.

11월에 추가된 일자리는 거의



대부분 공공 부문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공공 부문이 추가된 일자리의 9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취업률(취업 가능 인구 중 취업한 비율)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한 후 11월에 60.6%로 안정을 유지했다. 실업자 수는 6.1%나 급증해 총 실업자 수가 150만 명에 달했다. 이 그룹의 절반 가까이가 작년에 일하지 않았거나 전혀 일한 적이 없었다.

청년 실업률은 1.1%포인트 상승해 13.9%까지 올랐다. 노동 참여율은 0.3%포인트 상승, 65.1%를 기록했다.

지역 별로는 온타리오의 실업률이 7.6%로 한달 전에 비해 0.8%나 급증했다. 서부와 중부의 BC, 사스캐치원, 매니토바는 모두 실업률이 하락했으나 앨버타주는 0.2% 올라 7.5%의 실업률을 나타냈다.

실업률이 발표되자 정부 2년 채권 수익률은 8bp 하락해 2.942%가 됐고, 캐나다 달러는 동부시간 오전 9시 현재 미국 달러당 1.409 달러로 떨어졌다.

지속적인 고용시장의 약세로 캐나다 은행의 금리 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CIBC의 경제학자 앤드류 그랜틴은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이번 고용 데이터는 다음 주 캐나다 은행의 금리 결정 전 마지막 퍼즐이었고, 그 조각이 완벽하게 맞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50bp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었다.

몬트리올 은행의 경제학자들도 캐나다 은행이 다음 주 회의에서 50bp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들은 이 같은 '빅컷(50bp 인하)'으로 최근 약해진 캐나다 달러와 주택 시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롯트 인기 가수 임영웅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상영됩니다

지난 5월 상암 콘서트가 열렸고 이를 준비한 1년간의 과정을 영화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 날짜: 12월 17일(화), 18일(수)
- 장소:
 - 캘거리 시네플렉스 영화관 (선릿지, 시눅물)
 - 에드먼튼 시네플렉스 영화관(사우스 에드먼튼)

캘거리 실업률 7.9%로 꺾충

ATB, “급격한 인구증가, 일자리 추월”

(서덕수 기자) ATB 롱 로치 부대표가 11월 노동력 조사결과에 대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며 캘거리의 고용현황을 평가했다.

11월 캘거리의 실업률이 7.9%를 기록하며 전월보다 다시 0.2%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0%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캘거리의 고용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캘거리의 고용현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앨버타 전체 실업률도 7.5%를 기록하며 유사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치 부대표는 “실업률 상승 추세가 매우 우려스럽다.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구직수요가 캘거리의 일자리 수를 초과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말했다.

캘거리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는 33,000여 개로 구직 참여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았으며 앨버타 전체로도 7만 개에 이르는 일자리가 생겨나며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생겨나는 일자리가 구직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전체적인 실업률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

캘거리에서 생겨난 일자리는 헬스 케어와 사회복지 부문 2만 1천, 건설 부문 9천 2백, 제조 부문 6천 9백, 소매 부문 8천 3백, 과학 및 기술 전문직 부문 4천 여 개로 집계되었다.

반면, 공공부문 4천 2백, 빌딩

및 타부문 지원 서비스 부문 8천 여 개의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늘어난 일자리는 대부분 풀타임 일자리였지만 파트타임 일자리가 6천 8백 여 개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인구는 전년 대비 무려 7만 4천 여 명이 증가해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유입인구로 인해 고용률이 무려 1.1% 하락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인해 앨버타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18만 1천 명이 늘어났으며 이는 캘거리에서 생겨날 수 있는 일자리의 2.5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렇게 구직가능한 연령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고용창출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로치 부대표는 “그나마 캐나다 연방은행의 이자율 인하 소식이 기대되고 있다. 이자율이 하락할 경우 기업의 은행대출이 보다 손쉽게 이루어지고 비용부담이 줄어들 경우 추가 인력채용을 고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현재 캐나다 연방은행의 기준금리는 3.75%이다.

BMO 수석경제학자 더글라스 포터 씨는 “캐나다 연방은행도 경기침체 기조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고실업률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앨버타 건설 노동 인력 부족 현상 심해져

“주택 부족 현상으로 가격 상승 이어질 것”

(박연희 기자) 이민정책이 앨버타 건설 노동 인구의 성장을 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8년 안에 2만 명의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독립 계약자 및 비즈니스 연합(ICBA)의 회장 마이크 말텐스는 인력 부족은 결국 지금의 주택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이라면서, 건축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신규 이주자를 받기 위한 충분한 우선권이 없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리고 말텐스는 “우리는 매년 1백만 명을 받지만, 이 중 2%만이 건축 업계로 온다”면서, 2033년에 이르러 은퇴할 기준의 직원들의 숫자와 현재 고용 추세를 살피면 2만 2천명의 건축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말텐스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제와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 부족 인원은 3만명에 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년 초, 앨버타 UCP 주정부에서는 앨버타로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Alberta is Calling’ 캠페인을 기술이 있는 이들로 좁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주정부는 2024-25년 예산에서 3,200명을 위한 견습 프로그램에 1억 달러를 배정했다.

그러나 말텐스는 이것이 빠르게 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서, 인력 부족 문제는 20-30년 동안 발생한 것으로 하룻밤에 이것이 변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캘거리 건설 연합의 회장 빌 블랙은 건설 인력에서 이민이 결정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건설업이 인력 부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블랙도 향후 몇 년안에 인력 부족은 더 심해질 것이며 이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텐스의 주장에는 동의했다.

이 밖에도 블랙은 다급히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건설업체들은 결국 저품질의 작업물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CBC



믿고 맡길 수 있는
KENTREXS

www.kentrex.com

켄트렉스 이주공사

유학 * 취업 * LMIA * 비자 * 이민
사면 신청 * PR연장 * 시민권 신청

조기유학부터 시민권 신청까지 Kentrex 전문팀이 함께 하겠습니다.

President and Lawyer Ron G. Schulhaus

에드몬튼

최형란 이사 hchoi@kentrex.com
전화 (780) 758-7410 / (780) 414-7420 | 팩스 (780) 665-7078 | Suite 219, 6203-28 Avenue NW

캘거리

임선미 실장 michelle@kentrex.com | 전화 (403) 450-3698 | 팩스 (403) 450-3699
202A, 1324 11 Avenue SW Calgary, AB, Canada T3C 0M6

박경국 이사 kgpark@kentrex.com

반미주의자들 중에서는 “차라리 트럼프가 낫다.” 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트럼프는 전쟁은 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친북(?)인사들도 “트럼프가 낫다.” 고 말한다. 트럼프는 돈 많이 드는 한미 군사훈련 등 무력 시위보다 김정은과 개인적 친분을 과시하며 ‘툭 다운’ 방식의 접근법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임기때는 요란하게 정상회담만 두 번 했지 결과는 없었다.

이번 임기에도 북한 문제는 지난번과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미국은 공화당이 집권하건 민주당이 집권하건 북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과제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한다.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놓고 두 강성 지도자는 살아 싸움을 할 것이다.

지난번과 달라진 것은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이다. 트럼프는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미국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간주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 문제를 차이나와 경쟁관계에 지렛대로 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트럼프도 전쟁을 좋아한다. 그는 총각 들고 싸우는 전쟁보다 무역전쟁을 선호한다. 그가 내년 1월22일 취임하면 무역전쟁, 경제전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그의 무역전쟁 주적은 차이나, 그러나 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일본, 한국 등 무역 파트너 국가들 과도 갈등을 빚을 것이다.

트럼프가 주도하는 무역전쟁의 본질은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려는 일련의 정책적 조치로 요약될 수 있다.

1. 무역적자 축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수년 간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들과 거래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문제 삼았



오창근의 기자수첩

트럼프 發 2차 무역전쟁

다. 특히 차이나의 무역적자가 크다고 지적하며, 관세 부과 수출제한 같은 강경한 조치를 통해 이 격차를 줄이려 했다.

2018년 그가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는 코로나이전으로 세계 경제가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으나 코로나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공급망 문제, 에너지 위기, 인플레이 등으로 세계 경제가 긴장이 높아져 이번에 무역전쟁은 지난번과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2. 차이나 견제

트럼프의 무역전쟁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전략적 차원의 중국 견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지적재산권 침해와 기술 이전 강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며, 이는 차이나의 제조업 중심 경제 전략인 '중국제조 2025'를 약화시키는 목표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지배력을 줄이고,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

가 있다. 그러나 지난번 임기와는 세계 정세가 많이 달라졌다. 차이나는 2024년 기준으로 더 강력한 경제 영향력을 가지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 다시 무역전쟁이 시작될 경우, 중국은 반도체, 희토류 등의 분야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3. 미국 제조업 회복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슬로건 아래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강조했다.

관세를 통해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자로 자유무역에 비판적이다. 그 이유는 그의 주요 지지층인 중서부 제조업 중심 지역 백인 노동자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으로 미국의 제조업이 멕시코 등 저임금 국가로 이전되어 제조업 중심의 지역 경

제가 위축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트럼프는 보호무역을 강화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는 지난 임기처럼 관세와 규제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번에는 관세로 인한 수입품 가격 인상으로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고, 차이나도 미국 농산물 수입을 줄이는 등의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미국 농업 부문이 타격을 받았다.

4. 무역적자와 달러 패권 (기축통화)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다. 달러의 위세가 그전과 달리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금도 가장 중요한 국제간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58.6%를 차지하고 있고 무역, 국제 금융 및 투자자의 결제 수단의 88%가 미국 달러다. 그다음은 유로, 일본 엔, 파운드 순서다. 한때 위안화가 달러를 넘어 기축통화가 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나 위안화는 전세계 외환 보유고의 2.9%를 차

지하고 있다.

달러 패권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동전의 앞 뒤 면과 같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세계 각국은 국제간 거래, 투자를 위해 달러를 보유한다. 미국은 무역적자(수입 초과 현상)이 생기더라도 달러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자국 통화를 발행해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할 수 있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기축통화와 관련이 있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달러가 강세가 된다. 달러 강세는 미국 제품은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상품과 서비스 수입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아져 무역적자 폭이 커진다.

미국 국내나 자산에 투자로 자본 유입이 늘어나면 자본수지 흑자, 무역 적자를 초래한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에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달러 약세를 유도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통화완화 정책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무역적자를 줄이려고 기축통화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달러가 기축통화이므로 세계각국은 달러를 보유하려고 미국 국채를 산다. 그래서 미국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달러를 통해 세계 경제와 금융 투자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유지되고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각국이 달러를 선호하므로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달러의 기축통화는 미국 경제의 핵심자산으로 기축통화 포기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기축통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다.

트럼프가 무역적자 축소를 강조하는 이유는 경제적 측면도 있지만 제조업 부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북미 자유협정 같은 다자간 무역협정보다 1:1 협정을 통해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을 이끌어 내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앨버타와 오타와, 희귀질환 약물 협약 체결



에드먼턴 저널: 악수 나누는 두 장관

(오창근 기자)앨버타는 원할 경우 연방 치과 보증을 관리할 수 있으며, 약품 지원 프로그램(Pharmacare)에 대한 협약도 근접했다고 목요일 마크 홀랜드 연방 보건부 장관이 아드리아나 라그랑지 앨버타 보건부 장관과 공동 발표에서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앨버타 주민들을 위해 세 가지 약물을 도입하는 데 1억 6,200만 달러의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주 정부는 2023-24년 동안 1억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입해 100종 이상의 약물을 사용해 "수백명, 수천 명"의 희귀질환 앨버타 주민들을 치료했다.

앨버타 주민 12명 중 1명꼴로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엄청난 부담이다,"고 홀랜드 장관은 말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에 더해 약값을 고민해야 하고, 가정을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빠뜨릴 수도 있는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

을 상상해 보라. 집을 팔거나 자녀 중 한 명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경제적 부담과 어려운 진단이 겹치는 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목요일의 양자 협약은 희귀질환 치료를 위한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Drugs for Rare Diseases) 하에 체결된 것으로, 앞으로 3년간 매년 5,400만 달러를 신규 및 기존의 희귀질환 약물, 진단 및 선별검사를 위해 지원하게 된다.

2023년 3월, 연방 정부는 이 전략을 발표하며 3년간 최대 14억 달러를 주 및 준주 간 양자 협약을 통해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홀랜드 장관은 주 및 연방 정부 간 협약을 형성하는 데 있어 라그랑지 장관이 훌륭한 파트너였다고 극찬했다.

"우리는 기본 의료 분야에서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했으며, 앨버타에서 의사와 간호사 수가 크게 증가하는 진전을 보았다. 또한 품위 있는 노후와 희귀질환 약물 문제에서도 협력할 수 있었다,"고

홀랜드 장관은 말했다.

새로 추가된 세 가지 약물은 다음과 같다.

포텔리게오(Poteligeo): 세자리 증후군(Szary syndrome)을 치료하며, 이는 피부와 혈액에 영향을 미치는 암으로 연간 1천만 명 중 1명에게 발생한다.

옥슬루모(Oxlumo): 100만 명 중 3명 미만에게 발생하는 1형 고옥살산뇨증(hyperoxaluria type 1)을 치료하며, 이는 신장 결석과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에프킨리(Epkinly): 연간 10만 명 중 7명에게 발생하는 큰 B세포 림프종(large B-cell lymphoma)을 치료하며, 이는 비장, 간, 골수 등 기관에 영향을 미친다.

치과 및 약가 지원 프로그램 논의 계속

연방 치과 계획과 약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라그랑지 장관은 약품 지원 프로그램 협약 체결을 위해 앨버타와 오타와가 협력하고 있으며, 최근 체결된 다른 협약들이 이를 위한 합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수면 아래에서 많은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라그랑지 장관은 덧붙였다.

홀랜드 장관은 약품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 각 주마다 필요성과 약물 목록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B.C.와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때, 그들은 이 프로그램과 협력을 통해 절감된 자금을 할

트뤼도와 머스크의 인공지능(AI) 이미지 사용하는 온라인 사기

에드먼턴에서 204명이 1300만 달러 피해 입어

에드먼턴 경찰은 트뤼도 총리와 일론 머스크의 모습을 인공지능(AI)로 생성해 투자를 권유하는 온라인 사기로 에드먼턴 주민들이 올해 1,200만 달러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금요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에드먼턴 경찰은 올해 1월부터 11월 26일까지 204명의 피해자와 보고된 1,280만 달러의 손실이 관련된 172건의 사기 사건을 현재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건 중 15명의 피해자가 "트뤼도 총리와 유명 사업가 일론 머스크가 등장하는 사기"로 약 190만 달러를 잃었으며, 90만 달러를 잃은 피해자도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견되며, 합법적인 투자 기회인 것처럼 가장한 광고를 보여주며, 종종 트뤼도나 머스크의 비디오 지지처럼 보이는 것이 등장한다.

링크를 클릭하고 가정된 기회

용해 여성들을 위한 폐경 대체 요법을 발표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홀랜드 장관은 앨버타가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나서는 것도 괜찮다고 언급했다.

"앨버타가 치료 프로그램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에 관심을 표시한 사람들은 금융 전문가를 가장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투자로 큰 수익을 보장받는다.

그런 다음 사기꾼은 원격 액세스 앱을 통해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여 수수료나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다.

Trevor Semotiuk형사는 이런 방식으로 AI를 사용하는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이 사기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연락하라."고 권유했다.

"피해자의 신고는 이러한 투자 사기가 얼마나 잘못되고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덧붙였다.

"투자 하기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나 은행 기관에 직접 가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앨버타 보건부와 연방 보건부 간 체결된 다른 협약들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라그랑지 장관과 오늘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 우리가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고 홀랜드 장관은 말했다.

GST 면세 기간, 리테일러 혼란

심각한 물류 혼란 가능성

(이남경 기자) 이번 주말에 시작될 연방정부의 2개월간의 GST 면세 조치로 인해, 일부 켈거리 리테일러들은 소통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물류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상원 승인을 앞둔 이 GST 면세는 12월 14일부터 2025년 2월 15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면세 조치는 캐나다 전역에서 사실상 모든 식품, 어린이 의류 및 신발, 카시트, 기저귀에 적용된다.

마켓물에 위치한 릴 솔스 풋웨어의 공동 오너인 루즈 아레야노는 이 조치가 소비자들에게는 돈을 절약할 좋은 기회지만, 이미 재고를 구매하면서 GST를 지불한 자신 같은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어려움을 준다고 전했다. 아레야노는 “이 신발들은 시즌에 대비해 거의 1년 전에 주문되었고, 미리 GST를 지불했다.”라며, “그런데 최종 구매 가격에서 GST를 제외하라고 하면, 우리는 신발 가격의 5%를 손해보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레야노는 이 금액을 어떻게 회수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최종 GST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켈거리 상공회의소 회장 데보라 예들린 역시 GST 면세가 소비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소매업체들에게는 복잡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예들린은 “재고 시스템, 회계 시스템에 혼란을 줄 것이고, IT 시스템도 이 면세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물류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라며, “이 부분은 충분히 깊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밝혔다.

아레야노는 면세 기간 동안 판매 영수증을 분석하고 면세 품목을 구분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며, “고객이 한 가지 물건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어떤 품목이 면세 대상인지 아닌지를 철저히 숙지시키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어린이용 신발만 면세 대상이기 때문에 특정 사이즈 이상의 신발에

는 여전히 GST를 부과해야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GST를 제거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세금을 제거하는 작업은 또 다른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아레야노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전했다.

켈거리 대학교 비즈니스 스쿨의 호세인 피리 교수는 GST 면세가 온라인 판매에 적용되는 복잡성 때문에, 더 많은 소비자가 오프라인 매장을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피리는 “이 조치는 확실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매장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소비자들이 GST 면세 조치에 대해 알지 못하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피리는 “심지어 이 분야에서 일하는 나조차도 라디오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되었다.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예들린은 추가적인 작업 부담 때문에, 기업들은 시스템 조정을 돕기 위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예들린은 “기업들은 지금도 이미 우편 파업과 그로 인한 영향으로 바쁜 상황이다. 이번 면세 조치는 그에 더해 또 하나의 부담을 더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피리는 연방 정책 설계자들이 소비자 지원뿐만 아니라 소매업체들이 정보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추가 작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고 하며, “면세 금액이 낮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할 때, 이번 조치가 반드시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레야노는 고객들도 이번 GST 면세 조치를 갖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특히 한 쉼터는 면세 대상이고, 다른 한 쉼터는 면세 대상이 아닌 신발을 구매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라고 전했다.

내년에 식품 비용 최대 5%까지 치솟을 듯

캐나다 달러 약세와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육류와 야채 크게 올라

(안영민 기자) 캐나다의 식품 가격이 2025년에 최대 5%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5일 발표된 식품 가격에 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식료품 비용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것이며 특히 육류와 채소가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식품 가격은 2024년에 비해 3~5%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캐나다 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1~3%보다 높은 수치다.

보고서는 세 가지 다른 머신러닝 및 AI 모델을 사용해 가격을 예측했는데, 4인 가족인 캐나다인이 2025년에 식품에 지출하는 비용은 1만 6833.67달러로 이는 전년에 비해 최대 801.56달러 증가한 것이다. 식품 구입에 매달 약 67달러를 더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이 연례 보고서는 Halifax의 Dalhousie University, University of Guelph,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University of Saskatchewan을 포함한 여러 대학이 공동 연구한 것이다.

Dalhousie University의 교수이자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인 Sylvain Charlebois는 “불행히도 가족들에게 내년은 어려운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2024년 식품 비용이 당초 추정치의 하한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식품 비용은 2.5~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식품 인플레이션은 2.8% 상승에



CBC

그쳤다. 4인 가족의 경우 올해 436달러가 증가해 총 식품 지출이 1만 6032달러가 됐다.

Charlebois는 “2024년에 식품 인플레이션이 약간 둔화됐지만 2025년에는 다시 상승할 수 있다”면서 “올해 육류, 채소, 레스토랑 가격이 다른 아이템보다 더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범주가 내년에 식품 인플레이션을 더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보고서의 예측에 따르면, 육류가 식품 인플레이션 목록에서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쇠고기 산업 전문가들의 보고서와 일치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올해 쇠고기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엘버타주의 소 개체수가 1987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고, 쇠고기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이 쇠고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레스토랑과 채소는 3~5%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제빵류와 유제품에 대한 예측은 중간 정도로 2~4% 오를 것이며, 가격이 가장 덜 오르는 식품은 해산물과 과일로, 2025년에

1~3%의 증가가 예상된다.

식품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달러 약세와 기후 변화 때문이다. 이중 캐나다 달러 약세의 영향이 가장 큰데, 캐나다에서 소비되는 많은 식품이 수입되기 때문에 캐나다 달러가 낮으면 수입품이 더 비싸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한 극한의 날씨와 기후 변화가 식품 생산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뭄으로 인해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 가격이 높고 브라질에서 홍수로 인해 오렌지 주스 가격이 오르고 있는 점을 예로 들었다. 캐나다 일부 지역의 산불로 철도 노선이 막힌 것도 공급망에 문제를 일으키고 비용을 상승시킨 것으로 보고됐다.

Charlebois는 내년의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것과 관련된 잠재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캐나다가 트럼프의 관세 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상호 관세의 영향과 더불어 트럼프가 미국 농부의 비용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캐나다 농가는 미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

올 겨울, 서부 지역 예년보다 춥고 동/북부는 따뜻할 듯

캐나다 지구 온난화 전 세계 두 배 속도

(안영민 기자) 캐나다 환경부는 이번 겨울에 전국적으로 라니냐 기상 패턴이 자리 잡겠지만 기후 변화로 인해 지역 별로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4일 겨울 예보를 발표하면서 캐나다가 전 세계 평균의 약 2배 속도로 온난화되고 있다고 경고하며, 특히 북부에서는 더욱 심해 더 빈번하고 강렬한 극한 기상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3~5년마다 발생

해 1~2년 동안 지속되는 라니냐는 계절보다 낮은 기온, 대호수와 대서양 지방의 강설량 증가, 캐나다 남부의 건조한 대기를 가져온다.

라니냐로 인한 기상 변화로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서부 지역을 비롯해 가을이 매우 온화했지만 올 겨울에 캐나다 서부 지역은 예년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반면 북부와 동부는 정상 또는 정상 이상의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정상 기온이란 지난 30년 간의

평균 기온을 말한다.

유엔 세계 기상 기구는 2024년이 기록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며,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4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캐나다 환경부는 라니냐 기상 패턴이 일반적으로 겨울과 봄에 캐나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말한다. 라니냐는 겨울에 서해안과 로키 산맥에 많은 강수량을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많은 강수량이 매우 건조한 기상 조건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어 온 이들 지역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달러라마, 웨어하우스 건설 계획

(이남경 기자) 달러라마는 3년 내에 건설될 새로운 창고 및 유통 센터를 위해 켈거리 북쪽의 토지를 인수하였다.

달러라마는 지난 4일, 월마트, 소비스, 아마존 등 여러 기업의 유통 센터가 위치한 발작에 4,67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서부 캐나다의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시설을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부지는 2027년 말까지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달러라마의 대변인은 “켈거리 지역의 물류 허브는 서부 캐나다에 있는 달러라마 매장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하며, 몬트리올의 기존 물류 허브는 동부 캐나다 매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켈거리 경제개발의 CEO인 브래드 페리는 이번 발표를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놀라운 발표로 평가하며, “이는 우리 지역이 실제로 국가의 내륙 항구라는 지위를 강화하며, 물류 및 제조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전했다.

페리는 “산업 단지로 조성될 2,100에이커 이상의 철도 서비스 부지는 내륙 항구 지위 개념을 더욱 확고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몬트리올 기반인 달러라마는 2034년까지 캐나다 매장 네트워크를 2,200개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며, 2031년까지 2,000개 매장을 목표로 설정했고, 현재 1,601개 매장이 운영 중이다.

달러라마의 최고 경영자인 닐 로시는 “매년 긍정적인 고객 반응 및 캐나다 내 시장 잠재력 재평가에 따라 목표를 높이고 센터 개설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전했다.

3년간 200개 매장을 늘릴 경우, 매년 약 67개의 신규 매장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데자르맹의 분석가인 크리스 리는 이러한 계획이 연평균 60~70개 매장이라는 현재 수치와 일치한다며, 이 유통 센터가 달러라마의 두 번째 센터가 될 것이며, 창고 및 유통 운영 최적화와 비용 절감, 성장 계획 지원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BC 캐피털의 아이린 나텔 또한 유사한 의견을 표명했다.

나텔은 “서부 캐나다에 두 번째 물류 허브를 추가하기로 한 결정을 매장 수와 지리적 영향력의 증가를 고려할 때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공급 및 서비스 보안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라고 전했다.

Arbor Memorial

매년 마음을 보내는 마음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Pre-arrange 해 드립니다.

사우스 사이드 메모리얼 채플

South Side Memorial Chapel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서비스 보장

Life is a Story

Life is a Story

Life is a Story

- 매장 혹은 화장 등 모든 장례절차를 정성껏 보살피 드려드립니다.
- 장례식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편안하게 진행해 드리며 대형 장례식장과 리셉션 라운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www.southsidememorial.com

“Serving families for over 50 years”
“Canadian Owned and Operated”

Kristie Tourangeau
Funeral Director
780.432.1601

수잔 정(Susan Chung)
Family Services Director
Cell 780.885.6117(24hrs)
Hm 780.436.5936
susanchung7@gmail.com

독자투고 ————— 글 : 켈거리 노블아카데미 원장 정승희 / Iris Jung

캐나다 사관학교 RMC 입학과 생활 2편

오늘처럼 캐나다 사관학교(RMC: Royal Military College of Canada)에 관심이 많은 부모님으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을 때도, 자녀들의 장래를 걱정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학업상담을 하러 오는 학부모님들을 만났을 때도, 나도 부모로서 아들의 대학입시 준비를 위해 애를 태웠던 4년전 그때를 돌아보게 된다.

컴퓨터 게임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아들, 아빠에게 혼도 나고 자주 부딪히기도 했다. 사관학교가 목표였던 아이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로가 바뀌면서 입학을 하게 되었다. 1학년 무렵이었던 거 같다. 엄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지? 아들 최수호가 나에게 물었다. 자신이 그 곳에 있는 게 신기하다고 했다. 학교생활이 고되고 힘들텐데 자신에게 맞는 학교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공부도 해야하고, 체력단련도 해야하고, 영어와 불어 이중언어 능력도 갖추어야 하고, 리더십도 키워야하고 그래서 Four Pillars라 불리는 이 4가지 항목이 모두 기준요건에 도달해야 졸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수호는 5살까지 한국에서 살았을 때 몸이 약한 편이었고 자주 아프기도 했었다.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야구를 하다 왼쪽 다리가 똑각 부러진 적이 있었다. 켈거리 아동병원에서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지 않고 뼈를 맞춰 치료를 했는데 한달뒤 엑스레이에 뼈가 뼈뺄하게 보였다.

주변의 의사들이 뭔가 잘못 치료를 하고 있는것 같다고 해서 한국에 데리고 가 다시 수술을 해야하나 우리 부부는 날을 새며 여기저기 알아보았다. 다니는 캐나다인 교회에서 Second Opinion을 받아보라고 귀뜸을 해주어서 2명의 스페셜리스트를 만났고, 결국 캐나다 정형외과 스페셜리스트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걸 알게되었다. 성장하고 있는 나이였기에 자라면서 부러진 뼈가 반듯하고 더 튼튼하게 맞춰졌다. 철심을 박지 않았으니 수술 자국이 없었고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수 있었다.

체력테스트는 합격조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입학식전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 수호는 무난히 통과했지만 낙오되거나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했다. 그동안 태권도, 수영을 했었고 팔굽혀펴기, Pull-Up Bar를 이용해 턱걸이 등 집에서 꾸준한 체력단련을 스스로 했었다. 위험하다고 말렸던 마운틴바이킹을 했었고 그리고 성악을 해서 목소리도 커서였는지 훈련과정에서 리더역할의 모습을 보였다.



입학후 체력테스트는 1년에 2회 여섯종목이 치러지는데 첫테스트인 1학년 1학기에 수호는 2.4km 달리기에서 9분 25초가 걸렸고 4학년 1학기에는 8분 53초가 걸렸다. (2.4km 달기는 남자 10분 34초 이내이면 통과이고, 여자 12분 40초 이내이면 통과이다). 총 체력점수 500점 만점에서 400점 이상이면 Physical Fitness 뱃지를 받는데 수호는 458점을 받았다.

불어는 입학조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졸업을 위해서는 일정점수를 반드시 취득해야 하기에 수호는 입학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불어 수업을 들었고 1, 2학년 여름방학에도 학교의 불어 집중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했다. 3학년 1학기에 불어능력 점수가 통과가 되었고 이중언어 능력 Bilingualism Proficiency 뱃지를 받았다. 참고로 수호는 초등학교 1학년부턴 영어로만 공부를 했다. 불어도 공부를 할 수 있다면 고생을 덜기위해 미리 준비하기를 추천하고 싶다.

캐나다 사관학교는 학생들에게 성취감과 동기부여를 위해 뱃지를 수여한다. 수호는 성적 우수생들이 받는 Academic Distinction 뱃지를 달고 있다.

학교생활을 원만하게 잘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운동, 취미활동, 교류를 많이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수호는 취미활동으로 펜싱을 하고 있고 이번 4학년 1학기엔 학생 중대장(Squadron Leader)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호가 중학생 때의 일이다. 8학년 5월말 학교에서 전화가 왔다. 체육시간에 다리가 부러져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했다. 나는 막 수업을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아빠가 응급실로 향했다. 그때 내가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었던 건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것, 곧 의사의 손길을 위한 기도였다. 캐스트를 하고 크리치를 짚고 그렇게 꼼짝 못하고 7, 8월 여름방학을 보내고 9월이 되자 9학년이 되어 부츠처럼 생긴 캐스트를 신고 학교에 갔다.

수호는 새학기 첫날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친구들이 없어—누구누구는 퇴학당하고 누구누구는 전학을 갔고.” 그때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가 없이 그 친구들과 함께 계속 다녔다면 더 끔찍한 일이 생겼을 거라는 것을 수호도 우리 부모도 깨달을 수 있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수호는 2년제 항공운항학과에 가려고 했었고 빨리 일을 하고 싶어 했었다. 개인과일렛면허는 사설비행학교에서 취득했다. 처음부터 사관학교를 준비했다면 어려서부터 카뎃활동도 시켰을거고 개인과일렛면허도 지원금으로 취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땐 부모인 우리가 관심이 없었고 특히 이곳 켈거리는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해 사관학교에 관한 정보를 접하기가 힘들었다. 맨땅에 헤딩하는 형태로 우리 부부는 정보를 수집했다.

한국에 계신 외삼촌인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를 해 주셨다. 그 좁은 문들을 다 통과해야 사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신기한 건, 아들 최수호가 이 학교에 가지 않았다면, 또 공군으로 신청하며 CFAST(Canadian Forces Aircrew Selection Test)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면, 부모인 우리도 이 아이의 재능을 발견하지 못했으리라.

목표했던 곳을 가고자 했으나 막혀버리는 경우도 있다. 막상 그때는 힘들었으나, 더 좋은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한다. 엄마, 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전쟁 등으로 세계가 어수선하지만 각자 처한 위치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오늘도 안전을 위해 기도하며 찬송가를 부른다.”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

<캐나다 사관학교 문의>
Canadian Armed Forces Recruiting Centre
700 6Ave SW #100, Calgary
403-974-2900

켈거리 노블아카데미
www.noble-academy.com
403-667-2595



안병희 (켈거리 문협)



미지를 향해

가보지 않으면 모르리

저곳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가보면 알게 되겠지

또 다른 세상이 보인다는 것을

켈거리 공항, 연말 맞을 대비

지난 여름 우박 피해의 여파 여전

(이남경 기자) 켈거리 국제공항은 기록적인 이번 여행 시즌을 준비하고 있지만, 여름 동안 도시를 강타한 대규모 우박 폭풍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

켈거리 공항 관리국의 최고운영책임자인 크리스 마일스는 우박 피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다가오는 휴가 시즌의 혼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마일스는 “우박 피해로 인해 항공편 수용 능력에 영향을 받거나 항공편을 축소해야 할 상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며, “터미널 일부 구역에서는 여전히 초기 피해를 복구 중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가장 심하게 손상된 탑승구 복구 작업은 2026년 7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마일스는 폭 11km, 길이 100km에 달하는 규모였던 폭풍으로 인해 이 지역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복구의 길은 멀고 험난하다고 덧붙였다. 8월 5일 발생한 폭풍은 대규모 우박, 강풍, 폭우, 국지적 홍수를 동반하며 켈거리 주택 20%에 피해를 입혔다.

캐나다 보험국에 따르면, 이번 폭풍으로 켈거리에서 발생한 피해액은 28억 달러로, 캐나다 역사상 두 번째로 큰 자연재해 피해로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공 크기의 우박은 켈거리 국제공항의 활주로를 강타하며 웨스트젯과 플레어 에어라인즈의 항공기를 손상시켰고, 이로 인해 항공사들은 보유 항공기의 10%를 수리 및 점검을 위해 운항 중단해야 했다.

웨스트젯의 콜린 타이넨은 “

이번 여름 켈거리 우박 폭풍으로 피해를 입은 17대의 항공기 중 2대는 아직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라며, 켈거리 공항 파트너들과 협력해 크리스마스와 겨울철 여행 시즌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날씨 관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치에는 수하물 처리, 항공기 후진 지원, 체크인 및 고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타이넨은 “우리가 매년 휴가 시즌에 겪는 주요 문제 중 하나는 추운 날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가 동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난방 장비에 투자했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 라고 설명했다.

또한, 타이넨은 “또한 겨울철과 휴가 시즌을 대비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실내 공간도 추가로 확보했고, 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어온 주요 과제 중 하나였다.” 라고 덧붙였다.

마일스는 2023년 한 해 동안 공항을 이용한 여행객이 180만 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기록을 경신해 19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또한, 공항에는 더 크고 두꺼운 지붕 구조를 포함한 개선 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일스는 이 작업 비용이 수백만 달러에 이를 것이고, 켈거리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조치라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켈거리 남쪽에서 레드디어까지 이어지는 우박 폭풍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라고 설명했다.

에드먼튼 동물원의 할머니 코끼리, 루시 건강 이상무

곧 50세로 평균 수명인 46.8세 뛰어넘는다

(박미경 기자) 에드먼튼 벨리 동물원의 코끼리 루시에 대한 건강 보고서가 나왔다.

은퇴한 루시는 말 그대로 ‘할머니’이지만 건강하며, 현재 2백만 달러를 들여 주거지를 리모델링하고 있다.

동아시아 코끼리인 루시는 두 살이었던 1977년부터 에드먼튼 벨리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데 이번 가을 필수 건강 및 웰빙 검진에서 수의사 및 사육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드먼튼 벨리 동물원의 책임자인 게리 듀어는 수의사 데니스 슈미트와 축산 전문가 대릴 호프만이 동물원의 포유류 치료에 도움이 되는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듀어는 "루시는 건강하고, 정신이 초롱초롱한 상태이며, 침착하고, 반응성도 좋다는 결과가 나왔다. 좋은 신호이다. 루시는 선택과 통제를 즐기는데 이는 정신적 자극과 신체적 민첩성, 기동성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어서 듀어는 "호프만이 루시를 제멋대로 하는 할머니라고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의미로 한 말이다. 그는 루시가 돌봐주는 이들과 엄청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으며, 우리 시설과 시에서 케어 팀과 케어를 책임지는 직원 및 사람들에게 투자한 자원에 대해 박수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또한 듀어는 "과거, 현재, 미래에 루시에게 도움이 되는 인프라에 계획적으로 투자한 것에 대해 호프만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루시의 나이를 감안할 때 이 정도 규모의 투자는 매우 인상적



에드먼튼 저널

이라고도 했다"고 말하면서 바닥재와 냉난방 및 환기장치를 포함한 시설 변경에 2백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지금까지 27킬로그램의 자궁 중앙에 대한 치료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식단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루시는 454킬로그램을 감량해 8,500파운드 체중이 줄어들었다.

듀어는 "건강 측면에서 볼 때 루시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신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물 권리 운동가들은 루시의 에드먼튼 집이 적절하지 않다고 항의하면서 루시를 보호소로 옮길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듀어는 곧 50살이 되는 외로운 코끼리를 걱정하는 사람들과 대중이 온라인 보고서와 영상을 보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서 듀어는 "두 전문가 모

두 루시가 에드먼튼 벨리 동물원에 계속 머물러야만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그 이유는 서로 달랐다"면서 "호프만은 시설에서 누리는 풍요로움과 활동성을 고려할 때 동물 복지 관점에서 볼 때 주거지를 옮기는 것이 동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반면 슈미트는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호흡기 문제가 초래되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동물원 측이 이동과 운동을 위한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실내 공간과 야외 공간의 "상당한 확장"과 냉난방 및 환기장치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말했다.

50세가 되면 루시는 아시아 코끼리의 평균 수명인 46.8세를 넘어서게 된다. 독일 출신의 수의사들은 루시가 심장마비만 아니라면 앞으로 10~15년은 더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생명

신의 숨결로
한 줌의 흙에서
영혼 가득
생명으로
태어나는 순간

황순원 디카시 공모전에 캘거리 원주희씨 우수상 받아

(김민식 기자) 한국에서 2024년 황순원 디카시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 <생명>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 디카시협회는 캘거리지부를 인정하는 공식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캘거리에서도 문협 디카시분과에서 더욱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정선화 변호사, Sun Choung



상업, 기업, 부동산, 유서, 민사
법률 전문가

상법, 기업법, 부동산법, 유서법
민사 분쟁의 모든 것

정선화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문제를
명확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M
MASUCH LAW
— Group LLP —

MASUCH LAW GROUP은 여러 변호사와 함께
고객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mail : schoung@masuchlaw.com

Tel : 403-543-1123 (한국어 서비스- 법무사 함제니)
403-543-1100 (Main)

Suite 240, 23 Sunpark Drive SE, Calgary

성명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침략하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을 만든 과거가 있는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된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또다시 대한민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미 불법으로 규정한 이 전쟁에 북한이 개입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전쟁을 지원하는 불법적인 군사협력이자 한반도에 또다시 긴장을 높이는 행위'이므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대한민국을 불법으로 침략했을 당시, UN의 결의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캐나다를 비롯한 UN 참전국들은 대한민국의 호국영웅들과 함께 한반도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현재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눈부신 번영의 기초가 되었다.

캐나다의 경우 대한민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맺기도 전이었지만 UN의 결의에 적극 호응하여 프린세스 패트리샤 캐나다 경비병 연대(2PPCLI)가 캘거리에서의 훈련을 마지막으로 부산으로 떠나는 등 연인원 3만 명이 넘는 군인이 참전하였으며 516명이 전사를 하였는데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캘거리 한인들은 캐나다의 '평화 수호를 위한 파병'과는 달리 이번 북한군의 파병은 '불법 침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점에서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캘거리 한인회는 2024년도 연말 정기 이사회 회의(11월 24일), 한인회 집행부 회의(12월 3일), 그리고 한인회 정기총회(12월 7일)에서 각 구성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한 아래 세 가지 사항을 공표한다.

첫째: 한국전 당시 대한민국이 캐나다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국토와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킬 수 있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 북한의 파병과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 국제사회 자유 진영의 요청이 있으면 - 이번에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과정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캘거리 한인회는 한글 정관 전문에도 나와 있듯이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과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및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통일국가 모델을 지지> 하는 입장에서 최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통일 의지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것이기에 단호한 반대 의사를 확인한다.

셋째: <국민의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 이 3대 통일 비전에 따라 올해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 강한 지지를 보내며 북한 이탈 주민을 돕고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캘거리 한인회 구성원도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24년 12월 9일

캘거리 한인회